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제3350호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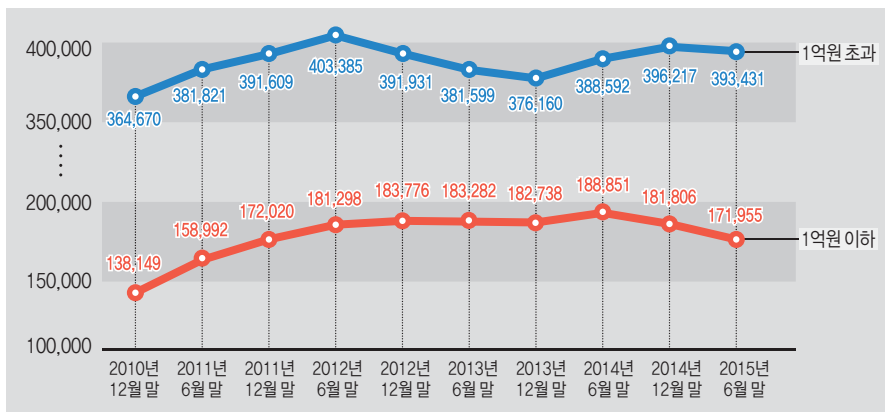
[라이프]
감귤농가에
카카오톡
떴다
13

Economy

코스피 2009.42 (-6.87)
코스닥 688.78 (+0.92)
금리(국고채 3년) 1.77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144.00 (-9.80) 〈25일〉

큰 손도 개미도… 은행 등진다

1억 초과 예금, 반년새 2조7860억↓
절세 노린 이탈… 보험·연금가입 늘어
서민, 1%대 금리… 달러·金 주목도



'머니 무브(자금이동)'가 한창이다.

한 계좌에 10억원 넘게 맡겨놓는 거액 예금주는 물론 서민들까지 은행에서 슬슬 돈을 빼고 있다. 기업이나 고액 자산가가 세원 노출을 피하고, 저금리 시대에 시중 금리 이상의 수익을 노리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거액 예금의 이탈로 은행들이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가들은 은행 예금에서 돈을 빼내 비과세 연금과 보험, 금, 미술품, 현금 등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자산이나 금융상품으로 옮기고 있다.

◆ 서민도 부자도 '뱅크런'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은행권 정기예금 중 예금규모 1억원 초과 계좌수는 총 42만2000개로 지난해 말보다 1만3000개나 감소했다.

1억원 초과 고액 정기예금 누적 계좌수는 2012년 하반기부터 줄기 시작해 2013년 6월 말 42만8000개까지 줄었다.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후 2014년 42만8000개까지 늘어난 바 있다.

거액 정기예금 규모도 392조4310억원으로 반년 새 2조7860억원이 은행을 빠져 나갔다.

B은행 프라이빗뱅킹(PB) 담당자는 "고액 자산가가 자금노출 회피 목적으로 돈을 빼는 것 같다"며 "은행의 거액 예금은 당분간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들어 금융실명제가 강화되고 금융소득에 누진 과세하는 종합과세의 적용 범위가 2000만원 초과로 확대되자 절세 목적의 이탈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금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해외 투자나 주식형 펀드 또는 금괴나 현찰로 보유하려는 자산가가 많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은행 이탈은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수준이다. 6월 말 현재 1억원 이하 계좌수는 1224만1000개 였다. 이 수는 최근 5년 새 한번도 꺾인 적이 없다가 지난해 상반기 1278만8000계좌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은행에 넣어둔 돈은 지난해 상반기 188조8510억원에서 171조9550억원으로 줄었다. 1년새 16조 8960억원, 반 년 새 9조 8510억원이 은행을 떠난 것이다.

이같은 뱅크런 현상은 정기예금 금리가 박하다 보니 돈을 맡겨봤자 남는 게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3년 동안 기준금리를 연 1.50%까지 인하한 이후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도 1%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거의 제로상태다. 지난해 11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도 한몫했다.

◆ 절세 보험·고령화 연금으로 '머니 무브'

이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 정확한 추정은 힘들지만 비과세 보험상품과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으로 일부 옮겨 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보험·연금 비중 추이' 자료를 보면 가계의 금융자산은 2011년 말 2349조6000억원에서 올해 1·4분기 말 현재 2967조1000억원으로 617조5000억원(2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과 연금 자산은 619조7000억원에서 931조2000억원으로 311조5000억원(50.3%) 불어났다. 가계 금융자산 중 보험과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6.4%에서 31.4%로 상승했다.

직장인 이모씨(40)는 "최근 찾은 정기예금 2000만원을 비과세 상품에 집어 넣었다"며 "돈 나올 곳은 뻔한데 별 대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계가 현금·예금 보유보다는 노후 대비용 자산을 집중적으로 쌓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테크'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히는 금, 은 등의 판매 추이는 정기예금에서의 자금 이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거래소 KRX금시장 개장 후 지난 17일까지 총 2955kg(약 1260억원 규모)이 거래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강화로 인해 달러 강세가 나타나 금값이 내렸다"며 "저가매수 거래량이 증가해 금 거래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달 하루 평균거래량도 16.2kg으로 지난달보다 155.3% 늘어났다.

고액 자산가인 A씨는 "솔직히 말해 부자들 중 장롱에 5만원권이나 골드바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요즘엔 달러나 다른 절세 상품을 눈여겨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지리산 탐방로, 소복이 쌓인 첫 눈

25일 밤사이 지리산에 눈이 내리면서 전북 남원시 산내면에 있는 연하천대피소(해발 1460m) 인근의 탐방로가 하얀 눈으로 덮였다. 올겨울 첫눈으로 2㎝가량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연하천대피소는 해발 1586m인 지리산 명선봉 바로 아래에 있다.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 첫 국가장

상도동 사저 거쳐 마지막 국회 등원
현충원 안장 후 공식추모제 않기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이 26일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된다. 지난해 말 개정된 법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은 국장과 국민장이 통합된 국가장의 첫 대상이 됐다. 김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은 고인의 평소 검소한 면모와 유족의 뜻에 따라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 부담이 크지 않은 규모로 엄수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뜰에서 진행되는 영결식은 가족과 측근 중심의 발인예배, 영결식, 안장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장례 절차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되 유족의 뜻에 따라 국회가 시설과 장소를 협조하고 지원하는 방식이다.

오후 1시 25분경 빈소를 출발한 운구차는 2시께 사회자의 영결식 개시 선언과 조악대의 조곡 연주를 시작으로 국회 마당에 들어선다. 손명순 여사와 유족들은 운구차를 뒤따라 입장할 예정이다.

운구행렬 입장과 함께 시작되는 영결식은 방송인 김동건씨가 사회를 맡았다.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묵념에 이어 장례집행위원장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약력보고와 장례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의 조사 순으로 식이 진행된다. 추도사는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인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맡았다.

국가장인만큼 4대 종교가 모두 거행되지만 고인과 유족의 종교인 개신교 의식이 먼저 배치될 예정이다. 종교의식 후에는 고인의 생전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애도와 추모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헌화와 분향을 한다. 바리톤 최현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추모곡을 부른다. 청소년합창단과 함께 고인이 평소 좋아하는 곡을 부르기로 했다.

사회자가 영결식 폐회를 알리면 김 전 대통령을 실은 운구차는 마지막으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앞을 천천히 돈 뒤 국회를 떠난다. 장례식은 1시간~1시간 30분간 엄수될 예정이다. 공식 노제와 추모제는 유족과 협의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영결식 규모는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때인 2만4000명보다 적은 2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례위원회에는 여야와 계파를 막론하고 민주화를 위해 함께 투쟁한 동지들과 참모들 등 222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측 추천인사 808명 외에 유족 추천 인사는 부위원장을 맡은 김봉조 민주동지회 회장을 비롯한 1414명이다.

다만 이날 영결식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유동적이다. 열흘간 해외 순방에 따른 과로와 감기로 체력 저하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청와대 참모진들은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시간동안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도로 일부 또는 전부가 통제된다.

영결식이 폐회하면 운구차는 다시 상도동 사저와 기념도서관을 거쳐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한다. 안장식은 서울현충원에서 오후 4시20분부터 1시간 반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통령의 묘소는 서울현충원 장군제3묘역 오른쪽 능선에 조성된다. 여기서 300여m 떨어진 곳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다. 생전 경쟁과 협력을 거듭했던 두 전직 대통령이 현충원에 나란히 안치된 셈이다. /연미란 기자 actor@

"청년 고용은 미래성장 디딤돌… 희생 안돼"

청년 일자리가 미래다

취업자 증가 통계, 20대 초반 집중
취준생 포함땐 체감실업률 20%↑
중장기 접근… 노동시장 구조개선

④ 전문가에게 듣는다

[글싣는 순서]
1부 N포 세대의 우울한 자화상
2부 천년에 희망을! 국가에 미래를!
3부 청년희망재단의 기부천사들
4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애쓰는 기업들
5부 이젠 노동개혁이다

청년층이 경기침체 늪과 내수부진의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란 신조어가 생겼다. 청년들은 이제 모든 수를 포괄하는 수학용어를 빌어 스스로를 'N포 세대'라고 부른다.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만 15~29세) 실업률은 7.4%로 2년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3년 5월 7.4%였던 청년 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져 올해 2월 11.1%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29개월 만에 다시 최저치로 떨어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년 구직자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 실업률 최저라는데… 체감온도 '영하'

전문가들은 통계청의 실업률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하고, 취업자가 증가한 연령대가 20대 초반에 집중돼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치상 청년 취업자는 늘었지만 취업의 질은 오히려 떨어진 상태"라며 "현재 통계 기준에서 실업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취업 준비생'을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은 20%를 웃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0월 기준 청년층 중 20~24세 취업자는 지난해 대비 6만5000명 늘어난 반면 15~19세 취업자와 25~29세 취업자는 각각 1000명, 3000명 줄어 들었다. 또 청년층 비정규직은 올해 3월 기준 117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4000명 늘었다. 이중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2007년 10% 정도에서 올해 23%까지 급증했다. 청년 취업자 4명 중 1명이 시간제 근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30·40대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2009년 이후 감소추세인데 비해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이후 10년 동안 34~35% 수준으로 변화가 없다"며 "청년층 일자리의 27%도 저임금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5면에 계속〉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한줄 News

▲ **정치·사회·국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이 26일 오후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된다. 지난해 말 개정된 법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은 국장과 국민장이 통합된 국가장의 첫 대상이 됐다.

▲ 서울시는 **서울역고가**의 폐쇄를 내달 13일 0시로 늦췄다고 밝혔다. 이후 퇴계로·만리재를 오가는 차량은 염천교와 숙대입구 쪽으로 우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아일랜드의 보톡스 전문회사인 앨러간과의 합병으로 세계 최대 제약회사로 우뚝 선 미국의 **화이자**가 합병하자마자 분사를 추진한다. 법인세를 낮추기 위한 꼼수 합병으로 불 붙은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산업

▲ 농가와 소비자간 감귤 직거래를 연결해 주는 **'카카오 파머 제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카카오파머 제주는 제주감귤 유통사업에 뛰어든 카카오가 지난 10일 선보인 모바일 기반의 제주감귤 유통 O2O(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 서비스다.

▲ 국내 **수입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20만대를 넘어섰다. 2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 판매량은 19만6543대에 달했다.

▲ 사상 최악의 경영 위기에 처한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초긴축 경영에 돌입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는 실적 개선 또는 경영 정상화까지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긴축 경영을 하기로 했다.

금융·부동산

▲ 한 계좌에 10억원 넘게 맡겨놓는 거액 예금주는 물론 서민까지 은행에서 돈을 빼는 **머니 무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산가들은 은행 예금에서 돈을 빼내 비과세 연금과 보험, 금, 미술품, 현금 등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자산이나 금융상품으로 옮기고 있다.

▲ 대기업의 통 큰 배당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코스피200 결산 현금 배당이 15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 배당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시가 배당수익률도 1.44%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역세권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역세권 아파트 선호 이유로는 출퇴근 편의성이 49.7%(49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쇼핑 등의 편의시설 이용성 24.4%(244명) ▲미래가치 15.8%(158명) ▲아이 통학 9.9%(99명) 순으로 이어졌다.

유통

▲ 컴프레션 웨어로 대표되는 **에슬레저** 시장이 성장세다. 이에 따라 관련 브랜드의 국내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언더아머, 타미카퍼 등은 운동에 최적화된 의류를 앞세워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다.

▲ **11번가**가 흠집, 색상 등 미세한 문제로 반품된 상품이나 전시 상품 등 '리퍼브'(Refurb) 유아용품을 최대 73% 할인 판매하는 '리퍼브 상품의 재발견' 기획전을 개최한다.

여야, 대통령 경고·조문 정국 '아랑곳'

예산안·법안 놓고 또 힘겨루기

국회 본회의 내일로 연기
한중FTA·경제법 처리 희박

최경환 부총리
"내일까지 합의안 못 만들면 내달 2일 정부원안대로 처리"

새누리당 원유철(가운데)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여야 3+3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국회 상임위원회 손을 떠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대치 끝에 정부 원안만 놓고 심사되는 졸속 처리 우려가 한층 커진 셈이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쳐 28일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내달 9일부터는 소위원회가 가동돼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 30일까지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뒤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12월 2일 본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24일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 여부를 둘러싸고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지만 각자 주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가 예산 부담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경찰의 시위진압, 새마을 운동과 노동개혁, 4대강·자원외교 관련 사업도 막판 쟁점으로 남아있다.

이날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로서 최종 감액 협상에 나섰다. 예결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보류사업에 대한 소소위원회를 열어 감액 여부가 보류된 207개 사업을 놓고 협상을 벌여 1조원 가까이 삭감에 합의했지만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소소위에서도 합의에 실패해 재보류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개혁 관련 구직급여 예산 6387억원도 재보류 대상에 올랐다. 노동개혁 5대 법안으로 불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예산이 통과돼선 안 된다는 야당의 주장 때문이다.

게다가 여야가 노동개혁 관련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FTA 등의 법안을 놓고 잇단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 본회의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 하루 뒤인 27일로 미루는데 합의한 여야는 하루를 벌게 됐지만 쟁점 법안을 두고 입장차가 뚜렷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법안을 연계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큰 상태다. 특히 국제의료산업발전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와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역시 농·어업계 산업에 대한 대책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본회의에서 한·중FTA비준안을 비롯한 계류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입장차가 커 처리 가능성은 적다. 다만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관심이 높아진 테러방지법과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쟁점 타결을 전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중FTA 비준과 경제활성화법 등 경제관련 법안 처리에 국회가 움직이지 않자 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오는 27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오는 27일까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달 2일 정부 원안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입법 지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韓 블프'에… 10월 카드승인액 늘었다

총 55조6800억원… 승인증가율 13.1%
개별 소비세 인하도 내수 활성화 한 몫

여신금융연구소는 지난달 전체카드 승인금액이 55조68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여금연에 따르면 승인금액 증가율은 전년 동월 증가율(7.5%)보다 5.6%포인트 높은 13.1%를 기록했다.

순수 개인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은 8.5%로 전년 동월 증가율(6.4%)을 2.1%포인트 웃돌았다.

〈관련기사 19면〉

올해 1~9월 순수 개인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의 평균은 6.3%로 전년 동기 평균(5.7%)대비 0.6%포인트 높았다. 올 10월에는 그 차이가 2.1%포인트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달 1~14일 진행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개별소비세 인하가 내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10월 카드승인금액 상위 10대 업종〉 (단위 : 조원)

업종		'14.10월	'15.10월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1.	일반 음식점	7.01	7.60	0.59	8.4
2.	인터넷상거래	5.03	5.74	0.72	14.2
3.	공과금 서비스	1.74	4.56	2.81	161.3
4.	주유소	3.85	3.50	-0.34	-8.9
5.	대형할인점	2.69	2.66	-0.03	-1.2
6.	슈퍼마켓	2.06	2.33	0.27	12.9
7.	국산신차판매	1.87	2.12	0.24	13.0
8.	일반백화점	1.56	1.90	0.34	21.9
9.	보험	1.33	1.48	0.14	10.8
10.	약국	1.13	1.16	0.04	3.1
상위 10대 카드승인금액		28.27	33.05	4.78	16.9
상위 10대 비중(%, %p)		57.4	59.4	1.9	

상위 10대 비중은 전체카드 승인금액에서 상위 10대 카드승인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여신금융연구소

체크카드 시장의 성장으로 체크카드 승인금액(11조6000억원)은 4개월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체크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은 17.9%로 전년 동월 증가율(17.2%)을 0.7%포인트 상회했다.

대중교통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은 6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종결 이후의 대중교통 수요 회복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2% 증가했다.

유통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은 7조82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5% 증가했다.

지난달 2주간 열린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동안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할인, 경품행사와 카드사의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유통업종의 카드승인금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여금연은 설명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로켓 재활용 실현… 값싼 우주여행시대 열리나

〈블루오리진사〉

아마존 CEO설립 민간개발사
우주선 발사용 로켓회수 성공
지구 넘어 우주 궤도 실험 숙제

블루오리진사의 뉴세퍼드 로켓. /뉴시스

사상 최초로 하늘로 솟아 오른 로켓이 다시 발사장으로 돌아오는 데 성공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민간우주개발회사 블루오리진사가 만든 뉴세퍼드 로켓이다. 로켓 재활용 시대가 열리면서 값싼 우주여행도 머지 않아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블루오리진사는 전날 오후 12시 21분 미국 텍사스주 서부 밴 혼 인근의 회사 소유 로켓발사장에서 뉴세퍼드 발사 실험을 실시해 로켓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의 성공 사실은 다음날 동영상과 함께 발표했다. 블루오리진사는 지난 4월 발사 실험에서는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실패한 바 있다.

블루오리진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뉴세퍼드는 지상에서 100km 높이까지 올라가 머리 부분의 무인 캡슐을 분리시켰고 발사 8분만에 지상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까지 미 항공우주국(NASA)을 비롯한 기존의 우주개발기구에서 사용한 로켓들은 발사후 불에 타거나 내려오면서 바다로 추락하는 등 일회용품에 그쳐 왔다. 이로 인해 우주산업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돈 먹는 하마'와 같은 존재였다. 이번 블루오리진사의 성공은 우주산업 가격파괴의 신호탄인 셈이다.

대중을 위한 우주시대를 꿈꾸며 블루오리진사를 설립한 베조스는 자신의 트위터에 "재활용 로켓은 정말 보기 드문 성공이다. 착륙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해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베조스는 ABC 방송에 출연해서는 "우주선 사업에서 비싼 로켓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건 보잉 747 여객기를 타고 한 번 외국에 다녀온 뒤 이를 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면 항공권이 얼마나 비쌀지 상상을 해보라"고 말했다.

블루오리진사는 로켓 회수와 관련한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추가 실험을 계속할 계획이다.

블루오리진사에 남은 과제는 우선 로켓을 지구궤도 너머 우주까지 올려 보낸 뒤 회수하는 일이다. 이번 실험은 지구 저궤도에서 이뤄졌다. 이 때문에 경쟁자인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축하한다. 그러나 우주와 궤도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스페이스X를 설립해 펠컨9 로켓을 개발 중이다.

/송병형 기자 bhsong@

SK하이닉스 "전체 직업병 질환자에 보상 하겠다"

산업보건 검증위원회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근로자들의 백혈병 등 직업병과 관련해 산업보건검증위원회(검증위)의 진단결과, 반도체 작업장과 발병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증위는 인과관계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SK하이닉스가 암과 희귀난치성질환 발병자에 대해 포괄적인 지원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SK하이닉스는 검증위 제안을 받아들여 사내 위원회를 구성, 직업병 의심사례로 나타난 전 질환환자를 대상으로 지원과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실태검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장재연 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반도체 작업장과 발병 간 인과관계 여부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반도체 작업장-직업병 인과관계 확인 어렵다"

SK하이닉스 검증위는 25일 광화문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진행한 SK하이닉스 작업장 산업보건 실태에 대한 검증결과와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업장 내 직업병 관련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10월 회사와 독립적으로 선정된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구성했다. 검증위는 이후 1년 간 작업환경 실태와 직업병 의심사례 조사 등을 포함한 산업보건진단을 실시했다.

검증위는 조사 결과 "새로운 사실을 다수 확인했지만 발생기전이 복잡한 암이나 발생률이 극히 낮은 희귀질환들은 질환의 특성상 인과관계 평가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상당한 수준의 노출이 있음을 확인하는 방식은 반도체 직업병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근로자의 심각한 질병들에 대해 인과관계 확인을 유보했다"고 덧붙였다.

검증위가 SK하이닉스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제품 860종(성분으로는 총 2296물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발암성, 돌연변이원성, 생식독성이 있는 물질 18종이 확인됐다. 이들 중에 아르신, 황산 등은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핵심물질이며 석유계 가스, 나프타, 정제유 등과 같이 장비보수, 세척 등에 사용되는 제품의 성분인 물질도 있었다.

지금까지 화학물질 성분이나 독성을 알기 어려웠던 영업비밀물질 중 작업자들에게 노출가능성이 높은 제품 위주로 선택해 분석한 결과 총 151개의 화학물질을 새롭게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이 의미 있는 농도로 확인된 경우는 에틸벤젠(함량 3%), 크레졸(4.2%)이었다. 또 일부 공정에서 포름알데하이드 등 유기 화합물, 비소 등 중금속, X-레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노출기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지난 2010~2014년 암으로 병가를 신청한 SK하이닉스 근로자는 모두 108명으로 이중 갑상선암이 전체의 56.5%(61명)로 가장 많았다. SK하이닉스 근로자들의 갑상선암 발생 확률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에 비해 남성은 2.6배, 여성은 1.3배 높다는 점에서 유의미 하다고 검증위 측은 설명했다.

이어 뇌종양(10.2%), 위암(9.3%), 유방암(8.3%) 등의 순이었다. 백혈병 등 조혈기계 암은 4.6%였다. 또 SK하이닉스 생산직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에 비해 자연유산율이 1.3배, 여성 방광염이 1.1배 높았다. 피부염이 여성은 약 1.4배, 남성은 1.3배 더 높았다.

"반도체 작업장-직업병 인과관계 확인 어렵지만 포괄적 보상 필요" 권고

SK측 "사내위원회 구성"

◆ 검증위, 포괄적 지원보상체계 마련 제안

검증위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근로자들의 치료와 일상유지에 필요한 기본수준을 지원하도록 '포괄적 지원보상체계'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다발혈관염육아종증, 전신성 홍반루푸스, 전신경화증, 파킨슨병, 다발성경화증 등의 희귀난치성질환, 불임, 자녀의 소아암과 선천성 심장기형 등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1999년 10월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합병 이후 최소 1년 이상 생산직에서 근속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퇴직자의 경우에는 10년 내 발병한 경우로 제한했다. 협력사 직원도 최소 1년 이상 사업장에 상주한 생산직 노동자라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액은 치료비와 직·간접 비용을 포함해 최대한도를 정하되 근속기일이나 직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고 암의 경우 1회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검증위는 보상과 별도로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작업장에서 산업보건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총 127개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장재연 검증위 위원장은 "직업성 암을 인정하는 데 있어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SK하이닉스의 검증위원회의 경험과 제안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근로자 질병에 대한 사회적 보장의 확대, 산재보험 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SK하이닉스 "직업병의심 전질환·협력사 직원도 보상"

SK하이닉스는 검증위의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 근로자 질병에 대한 사회적 보장의 확대 및 새로운 산업보건 지원·보상시스템 패러다임을 구축하며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다.

SK하이닉스는 "검증위의 연구 결과 과거 작업환경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생산현장을 대상으로 연구·조사했음에도 반도체 사업장과 직업병 간 인과관계 평가는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확인됐다"며 "하지만 SK하이닉스는 검증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심사례로 나타난 모든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과 보상을 실시하겠다"며 "전·현직 SK하이닉스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까지 지원·보상 대상에 포함해 산업보건 지원·보상 시스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 이른 시간 내에 노사와 사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 '사내 위원회'를 결성하고 관련 질병 지원·보상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 화학물질관리방법 등 작업환경 분야와 사내 조직 신설, 복지제도 개선 등과 같은 산업보건안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SK하이닉스는 2015년 현재 이천과 청주 사업장을 기준으로 1230억원의 안전보건 관련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이를 매년 10%씩 늘려 2017년까지 3년 간 총 4070억원을 안전보건관리·시설 강화에 투입할 예정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합병 후 20억달러 아낀 화이자, 2018년 다시 나눈다

〈법인세 절감〉

직원 사기위해 2~3년 늦췄지만
美백악관 "과세 회피용 합병" 비난
대선 주자들도 "이탈 역겹다" 맹공

미국의 거대 제약사 화이자와 보톡스 등을 생산하는 아일랜드의 앨러간이 22일(현지시간) 1600억 달러(약 186조원) 규모의 합병안에 합의해 세계 최대 제약회사가 탄생했다. 그러나 화이자가 합병 회사 본사를 아일랜드로 삼기로 해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본사를 이전해 세금을 낮추는 '조세 회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진은 23일 뉴욕 화이자 본부의 회사 로고 앞을 한 남성이 지나가는 모습. /연합뉴스

아일랜드의 보톡스 전문회사인 앨러간과의 합병으로 세계 최대 제약회사로 우뚝 선 미국의 화이자가 합병하자마자 분사를 추진한다. 애초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로 법인을 옮기기 위한 '꼼수' 합병이었던 만큼 굳이 '세계 최대'라는 타이틀에 연연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가뜩이나 '세금 회피' 꼼수로 불 붙은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세금 회피 의도가 더욱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사기 저하도 큰 문제다. 화이자도 이를 의식해 당장 추진하려던 분리 작업의 시한을 2018년까지 늘려잡았다는 후문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화이자 경영진은 앨러간과의 합병을 분사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고 합병 이전부터 분사 계획을 마련한 상태였다. 화이자 경영진은 수년 동안 효율적 경영을 위해 회사를 분사하고 싶었지만 독자적으로 생존하기에 사업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다는 우려로 인해 미뤄 왔다는 것이다.

앨러간을 흡수해 사업 규모를 키운 화이자는 회사를 둘로 나눌 계획이다. 신약부문과 특허권 만료직전인 구약 부문이다. 구약 부문은 판매량이 적고 마진이 낮다. 회사를 둘로 나눈 뒤 각각의 사정에 맞는 경영을 해나가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신약부문에는 화이자의 폐렴구균 백신인 프리베나, 유방암 치료제 이브랜스, 주름 개선 치료제인 보톡스 등이 포함된다. 이브랜스와 보톡스 등은 두자릿수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주력 의약품이다.

구약 부문에는 콜레스테롤 저해제 리피토, 항생제 자이복스, 관절염 치료제 셀레브렉스, 과민성 방광 치료제 데트롤 LA, 경구피임약 로로에스테린, 항생제 테플라로, 피부감염 치료제 달반스 등이 포함된다. 잠재적으로 매출 신장률이 한자릿수 중반대에 머물고 있는 의약품들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주주들이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분사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약과 구약 부문이 분리되면 경영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화이자가 연내 인수합병을 마무리하고, 내년께 분사에 돌입할 거라는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화이자는 분사 시기를 2018년으로 늘려 잡았다. 이에 대해 WSJ는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화이자는 신약과 구약부문으로 분사된 후에도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심하고 있다. 이안 리드 최고경영자(CEO)가 분사 시기를 2018년으로 잡은 것도 이같은 고민을 방증한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 취업정보 사이트인 글래스도어에는 합병 이야기가 나돌던 지난 7월 화이자의 합병 이후를 걱정하는 직원들의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직원들은 고위 관리자들이 인수·합병으로 바뀔 때마다 조직문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조금 적응했다 싶으면 또다시 인수·합병 사건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화이자는 외부적으로도 비난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전날 미국 백악관은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이 나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합병을 비난하고 나섰다. 사실상 화이자를 겨냥해 지금까지 미국사회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으면서 절세를 위해 본사를 이전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대선 주자들도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비난을 쏟아 냈다. 막말로 유명한 공화당의 유력주자 도널드 트럼프는 "대규모 실직을 가져올 화이자의 미국 이탈이 역겹다"고까지 말했다.

화이자는 1600억 달러(약 186조 원)라는 사상 두 번째 규모의 합병을 통해 미국에서 내던 25%수준의 법인세를 아일랜드의 17~18%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다른 비용절감까지 포함하면 약 20억 달러의 이익을 보게 된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中과의 경쟁력 격차 축소 한국기업엔 큰 과제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中의 산업경쟁력 향상 주의
인도사례 따져 투자 늘려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국제적으로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경쟁력 격차가 좁혀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5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분야 전문가들과의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중국 리스크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는 중국의 수요 둔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보다 유의해야 할 부분은 중국의 산업경쟁력 향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과 한국 기업의 경쟁력 격차가 축소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큰 도전,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연구원(KIET)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업체들은 우리 제조업 기술력이 중국보다 3.3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조사 결과인 3.7년보다 격차가 0.4년 줄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는 중국과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구조 전환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과 경쟁력 격차의 축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업은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도 투자환경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특히 인도 경제의 높은 성장세를 거론하며 기업을 위한 투자 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인도가 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최근 인도의 높은 성장세의 배경에는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한 것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도에서 지난해 5월 모디 정권이 들어선 뒤 1년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27% 가까이 늘었다고도 소개했다.

이 총재는 간담회에서 스탠리 피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부의장이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연준이 주최한 '아시아 경제정책 콘퍼런스'에서 한 발언도 소개했다.

피셔 부의장은 아시아 경제가 부진한 이유로 ▲글로벌 수요 부진 ▲글로벌 분업체계의 성숙에 따른 세계 교역의 신장세 둔화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구조 고도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 ▲인구구조 변화 등 4가지를 꼽았다는 후문이다.

이 총재는 이런 분석에 대해 "아시아 신흥국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함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전경련, 새누리당과 '한국경제 현안·재도약 간담회' 열고

"불황형 흑자가 문제… 한·중FTA 서둘러야"

기업 활력위한 '원샷법'도 촉구

"'불황형 흑자' 속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GS그룹 회장)이 25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 현안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열린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새누리당 지도부 의원들에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

허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했다. 게다가 수출 감소액보다 수입액이 더 많이 줄어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된 '불황형 흑자'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께서 지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함께하는 개혁'을 강조하신 바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경제주체들이 합심해서 돌파하자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직접 경제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제안해 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오늘 한국경제의 위기 현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말씀 드리고, 20여분의 기업 최고경영자(CEO)들도 주요 업종의 현황과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말씀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재계는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왼쪽부터)이 25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법, 기업활력제고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운룡 정무위 위원, 강석훈 기재위 간사, 박민식 미방위 간사, 이진복 산자위 간사, 권성동 환노위 간사, 이장우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 도경환 산업부 실장, 고영선 고용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전경련에서는 허창수 회장,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주요 그룹에서는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황규호 SK경영경제연구소 사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사장, 이완경 GS글로벌 사장, 김지원 현대중공업 부사장, 서용원 한진 사장, 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 전인성 KT 부사장, 이상훈 두산 사장, 김해성 신세계 사장, 변동식 CJ 부사장, 이광원 LS엠트론 사장, 오규석 대림산업 사장, 신해철 동부CNI 사장, 이동호 현대백화점 사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청년고용 늘리자니… 중장년·여성엔 되레 '역차별'

〈시간선택제·청년고용할당제〉

>> 1면 '청년 일자리 시리즈'서 계속

노동개혁 5대안·성과급 제도 등 개정안 갈등으로 논의 늦춰져 기업자율보단 기준 강화 필요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부여당 노동개악안 폐기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근로시간 단축·로제타 플랜의 한계

청년실업 문제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 직결돼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할당제를 일컫는 '로제타 플랜(Rosetta Plan)' 등을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지난 7월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방안으로, 근로자의 근무여건에 맞게 일자리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 '양질의 파트타임'으로 불리기도 한다. 기업입장에서는 전일제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 장점이다.

반대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성과급, 진급 등에서 차별당할 여지가 많고 '보조적인 일자리'에 그쳐 장래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1999년 벨기에 영화 '로제타'에서 이름을 따와 명명된 한국판 '로제타 플랜'은 어떨까.

당시 벨기에는 졸업생 50%가 취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벨기에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고발한 영화 로제타가 반향을 일으키자 이듬해 '종업원 50명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고용 인원의 3%를 청년으로 채워야 한다'는 정책을 펼쳤다. 제도 시행 첫해 5만여건의 고용계약이 체결되는 등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로제타 플랜을 가동하고 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규정, 지난해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 대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 391곳 가운데 할당량을 채운 곳은 291곳(74.4%)으로 법적 의무규정인데도 이를 어긴 곳이 100곳(25.6%)에 달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의무 이행 기관 비율은 54.5%로 공공기관 83.3%에 비해 매우 부진했다.

정부 야당은 지난 4월 '고용할당 비율 5%로 확대, 적용 대상에 300인 이상 대기업 포함'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보다 법적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면 중·장년층,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로제타 플랜에 반대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

노동자·사용자·정부 간 협의체인 노사정위원회는 현재 정부 여당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고임금·저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기업과 금융기관에 성과급 제도를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직결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 고용문제는 우리 모두의 상생을 위한 미래의 디딤돌을 만드는 것"이라며 "모든 계층에게 일자리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계층의 희생이 아닌 모두의 양보와 협력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경제성장, 산업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등 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정치, 사회, 경제문제가 모두 얽혀있다 보니 단시간 내에 결과물을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의 일자리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방안 외에도 투자유치와 일자리 모델을 연계한 협약 체결, 지역 내생적 성장전략을 통해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정책 대부분이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맞춰져 있다"며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니트(NEET)나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 인터뷰 | 장재만 청년광장 정책국장

"정부의 공공부문 청년고용할당제 100만넘는 청년실업자에겐 無用"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통해 공공일자리 재원 확보해야"

현재 청년의 삶은 '일을 하기 어려워서 가난하고,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로 집약된다.

정부가 7월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3년간 20만개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 신규채용은 7만50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12만5000명은 인턴과 직업 훈련만 받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재만 청년광장 정책국장(사진)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과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재벌·대기업의 넘쳐나는 사내유보금·법인세 특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 토론회에 앞선 인터뷰에서 "정부가 청년고용촉진법을 통해서 공공부문에 청년고용할당을 3%(8000개) 수준으로 하고 있지만 100만명이 넘는 청년 실업 현실에 실효성이 낮아보인다"고 지적했다. 장 국장은 3% 수준의 청년고용할당마저도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하루짜리 계약서 등 허위 보고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년 실업자는 44만명, 잠재 구직자는 59만명,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는 6만명, 잠재취업가능자는 1만명이며 청년층에서 실제 실업자(실업률)는 111만명(22.4%)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대기업의 경우 2013년 8월 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20대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수는 37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2000명 줄었다.

장 국장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 여력이 있는 정부와 대기업 주도의 공공부문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현재의 청년고용할당제 비율을 조정하고 이를 대기업 고용 정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3만명, 민간 부문 14만명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원내 3당이 모두 법안 발의에 동의한만큼 19대 국회에서 진전이 있길 바란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장 국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사내 유보금 과세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근거로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2013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 일자리 창출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내용을 들었다. 이 법안대로라면 약 2조원의 과세 효과가 기대돼 연봉 3000만원 기준 일자리가 6만7000개가량 창출될 것으로예상했다.

그는 이외에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12년 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회피 원인은 낮은 급여수준(39%), 고용불안(33%)이라고 지적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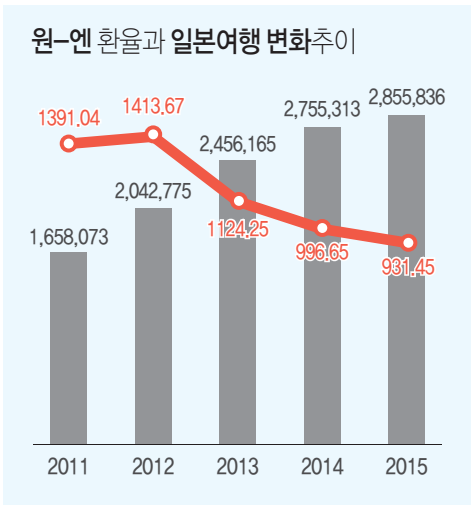
한·일 오가는 '하늘 길' 저가항공사가 확 넓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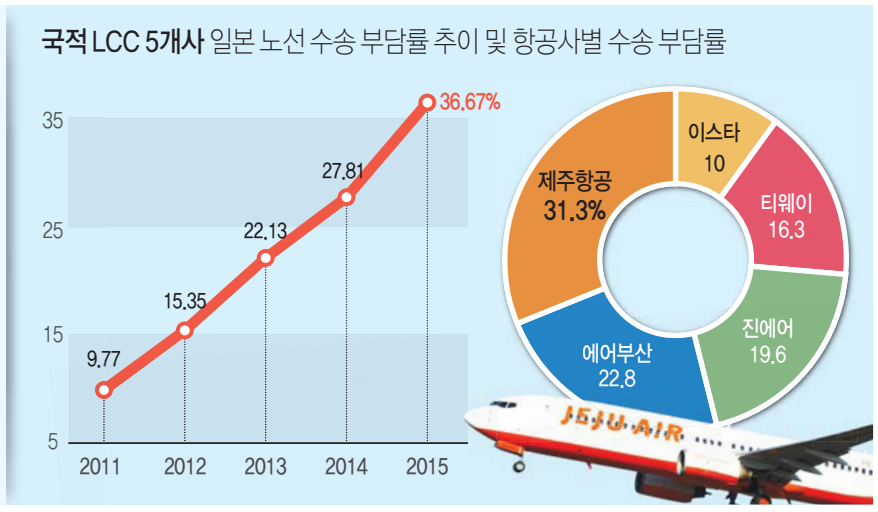
제주항공·에어부산 등 LCC 5개사 근거리국제선 수송분담률 절반넘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국내는 물론, 근거리 국제선 노선에서도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일본 노선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을 비롯한 국적 LCC들의 근거리 국제선 수송분담률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적 LCC 5개사의 국내선 수송분담률은 51.2%를 기록하며 이미 대형항공사(FSC)들의 수송분담률을 넘어섰고, 이 추세가 근거리 국제선에서도 가속화되고 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된 곳은 한일 노선이다.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등 7개 국적 항공사의 한일노선 수송객수는 환승여객을 제외한 유임승객 기준으로 총 750만9171명이었다. 이 가운데 국적 FSC를 이용한 여객수는 677만5816명으로 90.2%를 차지했고 LCC 수송분담률은 9.8%(73만3355명)에 불과했다.





이후 LCC들은 공격적으로 노선을 확대하거나 증편을 통해 2015년까지 연평균 35.1%씩 성장하며, 9월말 기준으로 전체 수송객 666만4676명 가운데 36.7%인 244만3746명을 수송했다. 반면 FSC는 점유율이 급격하게 줄어들며 63.3%인 422만930명을 수송하는데 그쳤다.

이 같은 시장 변화의 주된 이유는 각 항공사의 노선 전략과 원·엔 환율 등 외부변수가 꼽힌다. 2013년 이후 원·엔 환율 하락으로 구매력이 커진 우리나라 여행객들의 일본 방문 증가는 근거리 국제선을 확대하는 LCC의 노선전략과 맞아 떨어지며 시장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근거리 국제선에서 다양한 부대비용이 포함된 높은 운임의 항공권 대신 소비자 스스로 여러가지 유료서비스를 선택하고 운임은 낮추는 LCC에 대한 선호도가 급상승한 것도 시장 구도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여행객이 감소한 측면이 있지만 2011년 166만명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일본방문 여행객은 올해 9월말까지 벌써 286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2월말 기준 제주항공 등 5개 LCC의 일본 정기노선은 11개에 불과했지만 2015년 11월 기준으로 총 28개로 2배 이상 늘었다.

한일노선의 국적 LCC간 경쟁에서는 단연 제주항공이 이끌고 있다. 2015년 9월말 기준으로 제주항공은 76만5714명을 수송해 31.3%의 수송분담률을 기록했고 ▲에어부산 22.8%(55만7471명) ▲진에어 19.6%(47만9603명) ▲티웨이항공 16.3%(39만7669명) ▲이스타항공 10.0%(24만3289명) 순으로 집계됐다.

제주항공은 7개 국적항공사의 전체 한일노선 수송객수 비중에서도 11.5%를 차지하며, LCC 중에서 유일하게 두 자리 수 분담률을 보이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에따라 지난 4월 부산~오사카(일 2회), 부산~후쿠오카(일 1회) 노선에 신규취항 한 데 이어 현재 하루 한 차례씩 왕복 운항하고 있는 인천~후쿠오카 노선을 12월2일부터, 인천~오사카와 김포~오사카 노선을 12월11일부터 하루 2차례 왕복 운항으로 운항횟수를 2배씩 늘린다.

이처럼 LCC업체들이 근거리 국제선 노선 확장에 집중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 이미 동남아의 경우 4박5일 여행상품은 대부분 40만원 내외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中企 위한 맞춤형 IT기술이전 해준다

중기중앙회·ETRI,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사진)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김흥남)은 25일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술이전과 사업화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ETRI가 개발한 우수기술은 중기중앙회가 추천한 ICT 중소기업에 이전되며 양 기관이 관련 분야에서 축적해온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해 기술사업화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우수 기술의 성공적인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해 홍보, 기술미팅 등 마케팅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수요조사, 자금지원 알선, 정보 교환 등 기술사업화 전 과정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창희 중기중앙회 콘텐츠산업위원장은 "우수한 기술의 성공적인 이전과 사업화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중소기업에서 제품화되고 사업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ETRI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미란 기자 actor@

'올레드'로 더 아름다워지는 N서울타워

올레드 터널·물결형 미디어 월 등 역동적·이색적인 볼거리 제공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리노베이션을 끝내고 내달 말 선보이는 N서울타워에서 올레드(OLED) 패널을 사용해 다양한 올레드 조형물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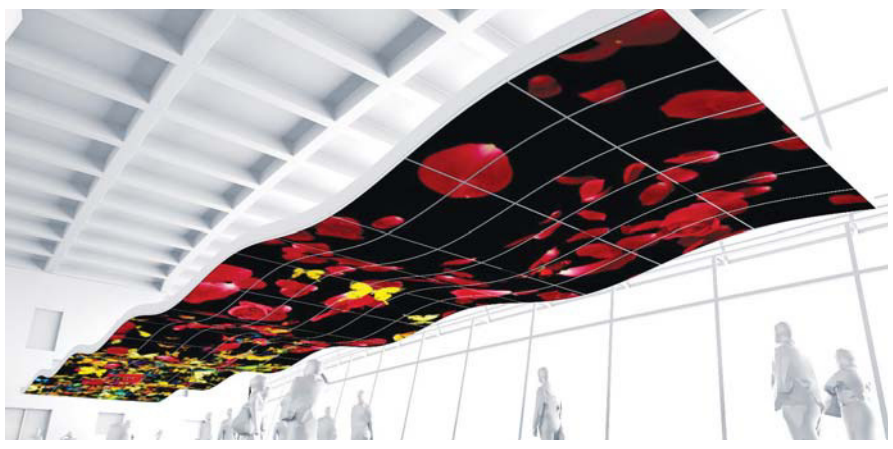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55형 올레드 250장을 투입하는 올레드 터널을 선보일 예정이다. N서울타워 1층에 들어설 길이 9m의 올레드 터널은 미디어 아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천정에 둥글게 이어 붙인 원기둥형 올레드, 곡면 패널을 천장에 길게 이어 붙인 물결형 올레드 미디어 월 등은 역동적인 화면을 구현해줄 예정이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N서울타워 올레드 조형물에 예술성을 갖춘 다양한 콘텐츠를 상영하며 올레드의 압도적인 화질을 알리는 동시에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레드는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색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자연색에 가장 가까운 화질을 구현한다. 또 관람객들이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색의 왜곡이 없다.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가능하고, 무게가 가벼워 사이니지(광고 등의 게시판)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도 올레드만의 장점이다.

/정은미 기자



남산 서울타워 예상 완성도. /LG전자

아이디어 있다면 노하우·능력 배양하세요

글로벌 창업·콘텐츠 제작자 양성 '한화 멤버십 프로그램' 실시

한화그룹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고 창의적인 인재 개발에 나섰다.

한화그룹은 25일부터 도전적 기업가정신으로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 창업을 희망하거나, 1인 콘텐츠 제작자로 변신을 꿈꾸는 인재들을 선발·양성하는 '한화 멤버십 프로그램'(HMP)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사업가 정신을 갖춘 국내 대학생(졸업생)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화가 가진 글로벌 인재양성프로그램을 접목해 해외진출의 길잡이가 되고, 방송·영상, 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춘 대학생이 향후 사회에 진출할 때 역량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다.

선발하는 인재상의 기준은 글로벌 감각과 능력을 보유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통해 향후 해외창업을 희망하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1인 콘텐츠 제작 및 창작역량을 갖춘 대학생이다. 나이나 전공제한은 없다.

이번 HMP는 두가지 분야로 총 7주간의 교육이 진행한다.

먼저 '글로벌 창업가' 과정으로 선발된 인재들은 한화그룹의 드림플러스센터에서 스타트업 관련 교육과 전문가 강의, 팀별 경쟁, 1주일간의 해외 현지 스타트업 기업 방문 및 사업구체화 등의 과정을 거쳐 스타트업 기업 운영의 노하우를 키우고,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찾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이번 글로벌 창업가 과정은 해외(중국)를 무대로 청년사업가의 꿈을 키워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콘텐츠 제작자' 과정은 한화그룹의 인재경영원 교육과 한화그룹 계열사 디지털마케팅 사례 교육 및 전문가 강의, 계열사 연계프로젝트 실시 및 발표로 콘텐츠제작 능력을 키우고 사회진출을 대비한다. 교육내용에는 디지털콘텐츠 기획-제작-유통-마케팅 등 콘텐츠제작의 전 과정을 두루 습득하게 된다. 과정을 우수하게 마칠 경우 향후 한화그룹계열사의 연관업무 지원 시 가점이 배정된다.

전형일정은 12월13일까지 한화그룹의 채용사이트 '한화인'을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면, 12월 18일 서류합격자가 발표되고, 이후 면접을 거쳐 12월 28일 최종 합격자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후 7주간의 HMP과정을 실시하고 2월 말 최종 과정을 수료한다. 과정을 마친 뒤에도 한화그룹은 지속적이고 체계적, 장기적인 양성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드림플러스와 접목해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를 한화그룹의 드림플러스를 통해 중국, 베트남, 일본 지역에 진출하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인큐베이팅할 예정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신격호 경영권 회복 여부에 재계 '이목집중'

롯데홀딩스 대표 해임 무효 첫 심리 판단능력·이사회 소집 여부 관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일본 법원에 제기한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 첫 심리가 26일 도쿄 지방 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번 소송은 신 총괄회장의 경영권 회복 여부가 가려지는 만큼 재계에서도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 7월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직에서 해임하고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당시 롯데홀딩스 이사회 측은 신 총괄회장이 노령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것을 인사의 이유로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을 신 총괄회장의 판단능력과 긴급 이사회 소집 동의 여부를 꼽았다.

일본 롯데홀딩스 정관에는 이사회 전원 동의하에만 긴급이사회 소집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있다. 당시 신 총괄회장은 대표이사 회장직에 있던 만큼 긴급이사회 소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셈이다. 또 신 총괄회장은 판단능력이 정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소송전에 있어 신 총괄회장이 불리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간 신 총괄회장이 '손가락 해임'이나 일방적 해임 통보 등 상법상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룹 인사를 결정해 이번 사태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

법조계 관계자는 "롯데는 주식회사다. 주주가 있고 이사회가 있다. 그룹 내 인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신 총괄회장이 말 한마디로 롯데그룹의 주요 사안을 정했었던 것이 본인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신동빈 회장 측은 이미 적법한 절차아래 해임이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할 준비를 마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글로벌 수익형 호텔
인천 골드코스트 호텔

삼부자가 지어서 삼부자가 직접 운영하는

인천 골드코스트 호텔
등기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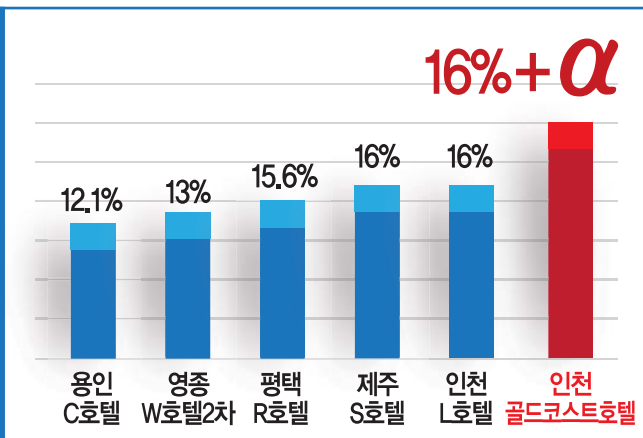
인천국제공항을 안고 **전국 객실 가동률 1위 인천!**
송도에 영종도를 더하고 남동국가산업단지·반월산업단지·시화산업단지가 받쳐준다!!

1%대 초저금리 시대! - 연금처럼 매월 수익받자!

- option 01 **5년 8% 확정수익보장(연8%+α)**
- option 02 **대출이자 1,000만원 선지급**
- option 03 **5년 후 환매보장**
- option 04 **연 10일 객실 무료이용**
- option 05 **시행사 직접운영** 부대시설 분양 안하고 객실 수익률에 포함

법적공증

실제 수익률 (실투자금 대비)



*2012년 전국관광호텔 운영현황 출처 : 관광지식 정보시스템(관광숙박운영 실적보고통계)

실투자금 3천만원대부터~ / 1,000만원 이자 선지급
2015년이 호텔 주인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모델하우스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34-24

신청계좌	KB국민은행 358801-04-143094 예금주 : 국제자산신탁(주) ※미계약시 청약금은 전액환불됩니다.
분양문의	1899-7555 [032-505-1040]

* 본 제작물에 사용된 이미지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컷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모델하우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골드코스트 | 시공 유호산업개발(주) | 신탁 국제자산신탁 | 운영 (주)골드코스트HMC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 찬반 시끌

"방통 융합 선도사례" vs "통신 공룡 지배력 확대"

방송통신 융합 개선 토론회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5일 마련된 국회 토론회에서 두 기업의 결합이 미칠 파장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맞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학계 전문가와 SK텔레콤, KT 등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를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번 인수가 방송과 통신 융합의 흐름을 선도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이동통신시장 공룡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팽배하게 나왔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에 관한 첫 토론회가 열렸다. 학계 전문가와 SK텔레콤 등 이해당사자들이 나와 인수 합병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이고 CJ헬로비전은 알뜰폰 점유율 1위로 케이블TV 가입자 420만여명을 보유한 업체다.

인수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빠른 기술 발전에 따라 공격적 혁신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유명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처럼 통신·미디어(방송) 구분을 넘어선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통신 업체가 사업 범위를 넓힐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광훈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이날 토론회에서 "구글 같은 국외 디지털 기업과 제대로 경쟁하려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번 인수가 고객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가 저렴하게 제공되는 등 이용자 중심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이동통신은 가입자 보급률이 포화 수준에 달해 성장 정체가 심각하다. 생활가치·미디어·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 차세대 플랫폼 사업자로 발전하려면 이번 인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로 이어지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생태계에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통신 사업자의 입지는 더욱 위축된다"며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통신사업자들은 M&A와 융합 서비스를 통해 위기 극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와중에 SK텔레콤은 글로벌 방송·통신 융합 트렌드에 부합해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케이블과 인터넷(IP)TV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대 진영에서는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커져 시장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IPTV·케이블TV 같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SK텔레콤 측(SK브로드밴드)과 헬로비전의 가입자를 합치면 약 745만명이다.

이 분야 1위인 KT(가입자 836만명)에 맞설 거대 사업자가 되는 데다 이미 헬로비전이 1위인 알뜰폰 시장에서도 SK텔레콤 측 점유율을 더해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방송학)는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유선방송으로 옮겨가고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인수를 허용하더라도 관련 규제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합병은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의 김희수 부소장은 "CJ헬로비전은 현재 전국 개별 지역 내에서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곳이 많아 전국 합산이 아닌 지역별 점유율을 보면 합병 후 SK텔레콤의 독점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동통신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인 알뜰폰 영역에서 지배적 이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1위 업체(헬로비전)를 통제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

美 ABC방송, 국내 최초 동시방영

LG유플러스

드라마·시사 등 총 29개 타이틀
모든 콘텐츠 100% 영어자막 제공

최신 미국드라마에 이어 세계적인 핫뉴스를 미국과 동시에 국내에서 생생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국내 최초로 미국 최대 지상파 방송국 ABC의 글로벌 뉴스 및 토크쇼를 미국과 동시에 방영한다고 25일 밝혔다.

ABC 방송국은 세계적인 영화·방송 그룹인 '월트 디즈니'가 소유한 미국 3대 지상파 중 하나로 뉴스, 토크쇼, 시사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글로벌 방송 사업자다. 특히 지난 9월 NBC 유니버셜 최신 미드 국내 독점제공에 이어 ABC 방송국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LG유플러스가 국내에서 유일하다.

이번에 제공되는 콘텐츠는 글로벌 뉴스 프로그램 '굿모닝아메리카', '월드 뉴스 투나잇'과 2015년 미국 에이미상을 수상한 토크쇼 '지미키멜 라이브'를 포함해 드라마·시사·교양·예능 등 총 29개 타이틀이다. 콘텐츠는 11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ABC 방송 2015년 미국 최고 SF 드라마인 '스티쳐스'는 LG유플러스에서만 단독으로 제공한다. '리얼 스토리: 생존자들', '뉴욕 ER' 등의 시사·교양 콘텐츠와 '아메리칸 퍼니스트 홈 비디오 시즌 26', '어메이징 레이스 시즌 20' 등의 예능 및 '블랙키시', '우주비행사 와이프 클럽' 등 드라마도 제공한다.

ABC 방송국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100% 영어자막을 제공한다.

/정문경 기자

'모바일팩스' 1년 만에 200만 다운로드

SK텔링크

다양한 문서전송 옵션 지원

SK텔링크가 선보인 '모바일팩스' 애플리케이션(앱)이 출시 1년만에 2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앱으로 자리매김했다고 25일 밝혔다.

SK텔링크 모바일팩스는 가입비나 월정액 요금 없이 통신 요금제에 따라 기본으로 제공되는 무료 MMS 문자를 이용해 간편하게 팩스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팩스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 6월 출시 7개월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데 이어 약 5개월만에 2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는 등 팩스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모바일팩스는 별도의 충전·납부 절차 없이 앱 설치 후 스마트폰 카메라, 사진앨범 또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문서를 바로 첨부해 보내기만 하면 된다.

'모바일팩스' 애플리케이션 /SK텔링크

기존 스마트폰 팩스 앱들과 달리 다양한 문서전송 옵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진 및 저장문서를 일반팩스 수준의 높은 해상도로 전송할 수 있으며, 트래픽이 많은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해외로 팩스를 보낼 수도 있다. 가입 시 부여받은 개인번호를 이용하면 무료 팩스 수신도 가능하다. /정문경 기자

스마트홈 기기로 '뉴스테이' 고급화 앞장

SKT, HN주택임대관리와 MOU
가구당 5대… 최대 5000대 공급
KEB하나 본지점 BEMS 설치도

SK텔레콤은 25일 HN주택임대관리와 내년 분양 예정인 '뉴스테이' 임대주택에 스마트홈 연동기기를 설치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SK텔레콤 조영훈 스마트홈TF장(사진 왼쪽)과 HN주택임대관리 백제욱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SK텔레콤

SK텔레콤은 25일 HN주택임대관리와 내년 분양 예정인 '뉴스테이(New Stay)' 임대주택에 스마트홈 연동기기를 설치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뉴스테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중산층 대상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업으로, 국토부는 사업 취지에 맞게 기존 임대주택 및 일반 분양 주택과는 차별화된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독려하고 있다.

KEB하나금융그룹이 뉴스테이 사업을 위해 출자한 HN주택임대관리는 2016년부터 대구, 부산지역 4개 KEB하나은행 지점의 부동산을 개발해 약 720세대의 뉴스테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뉴스테이 주택 최초로 가정용 사물인터넷(IoT) 솔루션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홈네트워크보다 한 차원 높은 최신 ICT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SK텔레콤은 이를 위해 가구당 최소 5대 이상, 최대 5000대의 스마트홈 연동기기를 설치해 또 하나의 '스마트홈 인증주택'으로 선정함으로써 뉴스테이 주택의 고급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SK텔레콤과 HN주택임대관리는 이번 임대주택 및 KEB하나은행 전국 240여개 본지점 건물에 빌딩 에너지 절약 시스템(BEMS)을 설치하기로 했다.

BEMS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한 에너지 사용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조명·냉·난방기 등 에너지 사용기기의 운용 효율을 높여주는 빌딩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으로, 뉴스테이 임대주택에 설치되면 입주자들의 주거 비용을 줄이고, 임대주택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문경 기자

KT, 중저가폰 '갤럭시J7' 오늘 단독 출시

공시지원금 받으면 10만원 대
개통고객 위한 프로모션 진행

KT는 26일부터 전국 올레매장, 직영 온라인 '올레샵', 삼성디지털플라자 등을 통해 삼성전자의 '갤럭시J7'를 단독으로 출시하고 개통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갤럭시J7 지난 7월 출시돼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갤럭시J5'의 후속 모델이다. 갤럭시J5보다 화면은 13.97㎝(5.5인치)로 커지고, 배터리 용량도 3000mAh로 커졌다. 베터리는 탈착형을 유지했다. 또 HD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플래그십 모델에만 적용되던 홈 버튼을 연속으로 2번 클릭할 경우 빠르게 카메라가 실행돼 촬영이 가능한 퀵카메라 기능을 탑재했다.

KT는 26일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J7'을 전국 올레 매장과 올레샵을 통해 출시하고 개통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KT

출고가는 37만4000원인데, 공시지원금을 받으면 실구매가는 10만원 안팎까지 떨어질 수 있다. 여기에 KT는 멤버십 포인트로 단말 할부원금을 최대 10%(최대 5만원)까지 추가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나 타 멤버십, 증권사 등 제휴 포인트를 한데 모아 쓸 수 있는 포인트파크 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KT는 갤럭시J7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31일까지 모든 개통 고객에게 갤럭시J7 전용 삼성전자 정품 배터리를 무료로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아울러 올레샵에서는 다음 달 4일까지 갤럭시J7 구매자들 중 7명 추첨을 통해 삼성전자 최신 웨어러블 기기인 기어S2 클래식(블루투스 버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문경 기자

'배당 늘리면 법인세 감면' 세제 혜택에

달라지는 대한민국… '배당 선진국'이 보인다

곳간 여는 기업

② 성숙기 접어든 대기업 배당, 지나친 사회적 요구는 禁

삼성, 잉여현금 최대 절반 주주환원
현대차·SK하이닉스 등 배당성향↑

대기업의 통 큰 배당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코스피200 결산 현금 배당이 15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 배당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시가 배당수익률도 1.44%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삼성·SK 등 기업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주주친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확대되면서 배당에 나서는 기업들이 더 늘어 날 것으로 본다. 기업소득환류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 등 배당장려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결산에서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여지도 커졌다.

◆올해 배당수익률 따져보니

국내 상장사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2011년 1.54%에서 2012년 1.33%, 2013년 1.14%, 2014년 1.13% 등 하락세를 보였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2000년 2.44%, 2003년 2.09%, 2004년 2.06% 등 2%대에 달했다.

덕분에 '배당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한국 기업들의 배당수익률은 1.30%로 조사 대상 51개국 가운데 49위였다. 아르헨티나(0.92%)와 아일랜드(0.82%)만 한국보다 배당수익률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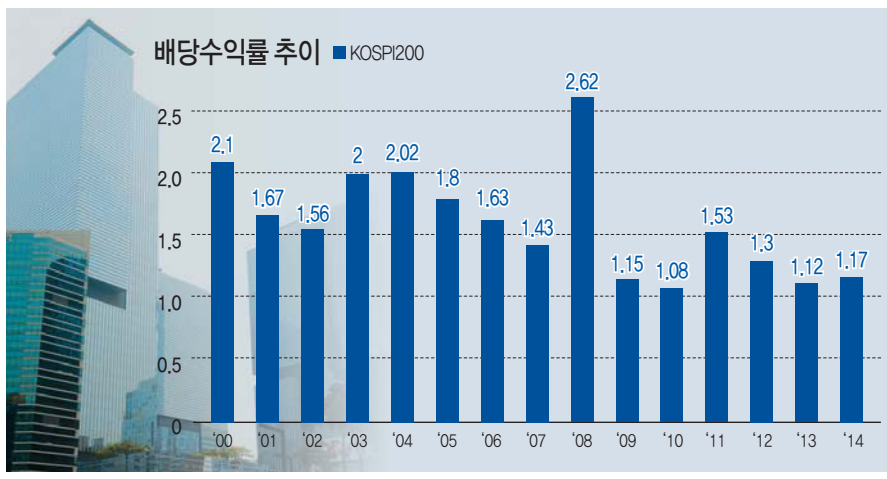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배당 수익률을 끌어 올리고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상장사들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1.43~1.44%로 지난해(1.13%)보다 0.3~0.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대신증권도 올해 연말 보통주 기준 코스피 시장의 예상 현금배당수익률(주가대비 예상배당액)은 1.49%로, 지난해 1.28%보다 0.2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대기업들의 배당 확대정책과 연관이 크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연간 잉여현금흐름의 30~50%를 배당 재원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 중 설비투자분을 제외하고 남는 재원의 최대 절반까지를 주주환원에 쓰겠다는 것.



현대차 SK하이닉스 등이 배당성향을 높이기로 했다.

국내 상장사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2011년 1.54%에서 2012년 1.33%, 2013년 1.14%, 2014년 1.13% 등 하락세를 보였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2000년 2.44%, 2003년 2.09%, 2004년 2.06% 등 2%대에 달했다.

윤정선 현대증권 연구원은 "기업들의 주주친화 정책에 따라 배당성향과 배당액 증가 폭이 전년대비 더욱 가파르게 나타날 전망"이라며 "향후에도 우호적인 배당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종목들이 점차 시장에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숙기 접어든 대기업, 배당 카드 쓴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29일 주주 환원정책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미래성장을 위한 기술 리더십과 안정적 재무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시설투자와 120억 달러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를 집행하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주주와 회사의 가치제고를 위한 현금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해 왔다"면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사업성장 뿐만 아니라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분위기가 다른 기업들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증권 곽병렬 연구원은 "기업들이 도입기에서 성장기, 성숙기로 진입할수록 수명주기는 증가하게되며 배당 여력도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세제 혜택도 기업들의 배당확대를 부추긴다. 올해부터 이익의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은 유보금을 활용한 배당 및 투자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배당의 사회적 요구가 지나칠 때는 역효과 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정순 이화여대 교수는 "경기를 타지 않는 제품은 배당성향이 높지만 세계 경기에 민감한 우리 산업구조는 그러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배당수준이 높은 금융과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의 비중은 27%에 불과한 반면 배당수준이 낮은 정보기술(IT)과 경기소비재·산업재의 비중이 약 56%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우리와 반대로 이 비율이 각각 36%, 28%라는 게 신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또 최근 기업사정을 보면 배당을 지급할 여력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잉여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에서 투자를 뺀 배당지급의 여력)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상위 10대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매년 마이너스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투자증권과 함께하는 자산관리

VIX지수 낮아질 때가 '好期'

〈호기〉

❽ '공포지수' VIX지수 알아야 보인다

주가지수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
IS 공습 불안에도 안전영역 유지

금융시장의 위험도를 가늠할 수 있는 VIX지수는 공포지수라고 불린다. VIX지수는 S&P500지수 옵션가격의 움직임을 기초로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예측한다. 시장의 방향성이 아닌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지수는 오른다.

VIX지수는 30일 단위로 변동폭을 %(퍼센트)로 나타낸다. 지수가 낮다는 것은 금융시장 변동위험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반대로 VIX지수가 높다는 의미는 시장 변동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장이 급등했을 때보다 급락했을 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VIX지수는 대개 주가지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지수가 높아지면 투자자들의 공포심과 불안감이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공포지수일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VIX지수가 가장 높았을 때는 2008년 금융위기였다. 금융위기 당시, S&P500지수가 급락하며 VIX지수가 80%까지 상승했다. 이후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VIX지수도 요동쳤다.

지난 8월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며 VIX지수가 3년 만에 최고치인 47%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파리 테러 이후에는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VIX지수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조금 반등하는 수준이었고 미국과 유럽 증시도 전문가들의 걱정보다 잘 견뎌주었다. 유럽과 러시아의 IS본거지에 대한 추가 공습 소식 등 금융시장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존재하지만 VIX지수는 16%수준으로 안전영역인 20%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VIX지수는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공포 심리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 등의 국가에서 자국 증시 모형을 토대로 변동성 지수를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우리나라도 코스피200 옵션가격을 이용한 한국판 VIX지수를 발표하고 사용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윤선영 투자전략팀 연구원

KB WM CAST 앱을 통해 자세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내맘대로적금', 입소문 타고 '1만좌 돌파'

KB국민은행은 지난 11일 출시한 스마트폰·인터넷 전용 상품 'KB내맘대로적금'이 지난 24일 기준 출시 10영업일 만에 1만좌를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KB내맘대로적금'은 영업점이 아닌 스마트폰·인터넷 상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설계하고 상품 가입 과정이 시각화돼 재미있다는 입소문이 퍼져 출시 이후 매영업일 평균 1000좌 이상이 신규 가입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KB국민은행

생명보험재단, 3번째 '건강기부계단' 상봉역에 설치

장애아들 보행 보조기구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은 25일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함께 상봉역에 건강기부계단을 설치했다.

시청역과 왕십리역에 이은 3번째 건강기부계단이다.

이날 상복역에서는 중랑구 나진구 구청장, 생명보험재단 유석쟁 전무,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렸다.

건강기부계단은 생활 속 걷기 활성화를 위해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걸을 때마다 기부금이 적립되는 나눔계단이다.

건강기부계단이 설치된 상봉역은 지하철7호선과 경춘선이 연결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이다.

생명보험재단은 건강기부계단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과 조명, 음악이 나오도록 했다.

실시간으로 시민의 걸음이 기부금으로 쌓이는 기부금 전광판도 설치했다.

건강기부계단을 통해 적립된 기부금은 걷기 어려운 장애아동들의 보행 보조기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25일 오후 서울 중랑구 상봉역에서 열린 '건강계단' 준공식에서 나진구 중랑구청장과 어린이들이 건강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유석쟁 전무는 "평소 운동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걷기운동을 할 수 있고, 나눔에도 참여할 수 있는 1석 2조의 건강기부계단을 많은 시민이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재단은 2007년 삼성, 교보, 한화 등 국내 19개 생명보험사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생명보험이 지향하는 '생애보장정신'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7대 목적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정필 기자 roman@

내집 마련 기회!… 연말 쏟아지는 알짜 단지 잡아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분양가 고공행진 속
동탄2·운정신도시 등 택지지구 주목해볼 만
쾌적한 환경·개발호재… 투자차익 기대까지

연말을 맞아 저렴한 분양가, 대단지·중소형 타입, 특화설계, 중도금 무이자 등 조건 좋은 아파트 단지가 시장에 속속 공급되며 분양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특히 올 한해 수도권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군 동탄2신도시와 운정신도시 등 택지지구에서 아파트가 쏟아진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강남재건축 시장,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가시화에 따른 인근 수혜지역 등에서 연말까지 6500가구가 공급된다.

택지지구는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수요층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매매가가 상승하고 신규분양단지마다 1순위에서 수십대 1의 경쟁률로 마감하는 단지가 속출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올 들어 1월부터 11월 2주차까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4만2264가구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739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일반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1157만원보다 1582만원(136.7%) 비싸다. 전세난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가 꾸준하고, 이사가 많은 계절적 요인이 더해져 연말까지 가격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연말 공급 되는 물량 가운데 쾌적한 주거환경과 대어급 개발호재를 갖추고 있는 데다 실거주 겸 투자차익을 노릴 수 있는 택지지구를 눈 여겨 볼 것을 제안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망하는 게 유리하지만 집값의 60% 이상 준비된 실수요자라면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는 진단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서울 전셋값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내집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대출에 의존해 내집마련을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여윳돈이 있는 투자자라면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연내 공급되는 물량 가운데 동탄신도시 1만가구 브랜드타운 아파트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9차'를 비롯해 동탄2신도시 최초 민간참여형 '동탄자이파밀리에', 파주 운정신도시 역세권 아파트 '롯데캐슬 파크타운 2차', 래미안+아이파크 '콜라보' 반포래미안 아이파크, 세종시 3생활권 첫 브랜드 아파트 'e편한세상 세종 리버파크', 올해 마지막 평택 소사벌 분양 물량인 '평택 소사벌 호반베르디움'이 주목된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서창 센트럴 푸르지오' 투시도. /대우건설

대우건설 '서창 센트럴 푸르지오' 1160가구

서울·인천·남동국가산단 교통 편리
키즈·실버세대 위한 테마공원 조성

대우건설은 2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2지구 5블록에 공급하는 '서창 센트럴 푸르지오'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으로 분양에 돌입한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10개동 116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74㎡ 719가구, 84㎡ 441가구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서창2지구는 서울과 인천도심, 남동국가산업단지로 이동이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다. 서창 JC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진출입이 쉬우며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이용도 쉽다. 내년에 강남순환도로와 인천지하철 2호선 운연역이 개통되면 교통 환경은 더 개선된다.

단지는 서창2지구 내에서도 중심상업지구,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까운 입지 조건을 갖췄다. 장서초등학교와 만월중학교가 도보거리에 있다. 서창2지구 중심상업지와 가까우며 인천 시내 홈플러스·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가천의대 길병원 등 이용도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녹지 공간도 조성된다. 일부세대에서 장아산 조망이 가능하다. 소래습지 생태공원, 인천대공원 등도 인접해 있다.

단지는 푸르지오만의 특화설계를 적용, 차별화된 평면을 제공한다.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4베이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이 좋다. 세대 내부에 드레스룸과 팬트리, 현관 수납장도 제공된다.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만들어진다. 유치원과 학원 통학차량 전용 승차장인 '새싹정류장'이 설치된다. 키즈빌리지, 실버세대를 위한 운동기구와 텃밭 등을 설치한 로맨스가든, 수경시설을 설치한 아쿠아가든, 계절별 꽃을 감상할 수 있는 플라워가든 등 테마 공원도 조성된다.

단지 내 보안 시설도 마련된다. 세대현관 앞에 사람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촬영해 홈네트워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도어 카메라가 설치된다. 동현관,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 200만화소 고화질 CCTV 카메라가 적용된다. 무인택배 시스템도 구역별로 들어선다.

또한 세대 홈네트워크를 통해 지하주차장 차량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위치 인식시스템이 적용된다.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비상콜 시스템이 지하주차장에 마련된다.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를 공급하는 공공분양단지로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됐다. 3.3㎡ 당 평균분양가는 800만원대 후반이다. 입주예정일은 2018년 1월이다. 견본주택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 649-1(인천논현역 1번출구)에 있다. /박상길 기자

GS건설 '동탄자이파밀리에' 1067가구

동탄2신도시 최초 민간참여형 주택
1067가구… 51㎡ 소형평형도 공급

GS건설과 신동아건설이 27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90블록 일대에 공급하는 '동탄자이파밀리에'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동탄2신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이다.

민간과 공공의 장점만을 모아 분양가는 낮추되 상품의 완성도는 높였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15~20층 11개동 1067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51㎡A 236가구 ▲51㎡B 60가구 ▲59㎡A 213가구 ▲59㎡B 55가구 ▲59㎡C 55가구 ▲74㎡ 110가구 ▲84㎡A 263가구 ▲84㎡B 75가구 등이다. 특히 동탄신도시 내에서는 처음으로 51㎡ 평형이 공급돼 소형 평형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 첫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으로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장점만을 결합해 브랜드 가치는 물론 합리적 가격에 완성도 높은 상품설계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돼 95% 이상이 판상형으로 조성된다. 4베이(일부 타입 제외) 구조의 특화 평면을 통해 채광과 통풍을 높였다. 1층 가구 일부는 테라스와 하부 다락방, 최상층 일부에는 다락방 공간이 제공돼 가구별 선호에 따른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또 낮은 건폐율과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춘 자연친화형 단지로 조성돼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단지 내에는 중앙마당과 가족형 텃밭인 자이팜도 조성된다.

단지는 동탄2신도시의 중심부이자 수공간을 대표하는 워터프론트 콤플렉스와 인접해 있다.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내에는 호수공원과 주거·문화 복합시설,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 등이 조성된다. 여기에 전체 부지의 47%를 공원과 수변으로 꾸며진다.

단지 주변에는 단독주택 등 저밀도의 주거지가 형성돼 남측 편의 하천 조망이 좋다. 단지에서 도보 5분권 내에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가 있어 통학여건도 장점이다.

교통환경도 좋다. 현재 공사 중인 KTX와 GTX 동탄역 광역환승센터를 이용하면 서울 강남권으로 10분안에 이동할 수 있다. 광역버스 첫 정류장이 단지 앞에 예정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청약은 12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9일에 발표되며 계약은 14~16일 실시된다. 입주는 2018년 1월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동탄자이파밀리에' 조감도. /GS건설

'e편한세상 세종 리버파크' 투시도. /대림산업

대림산업 'e편한세상 세종 리버파크' 849가구

자연환경+생활인프라… 알짜 입지
서울~세종간 고속道 교통호재 기대

대림산업은 다음달 초 세종시 대평동 264의 1번지에 'e편한세상 세종 리버파크'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세종시 3생활권에 처음이자 유일한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다. 단지가 들어서는 세종시3-1생활권 M4블록은 자연환경과 생활인프라를 갖춰 3생활권 알짜 입지로 평가 받고 있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30층, 13개동, 전용면적 99~145㎡, 849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별 가구수는 ▲99㎡A 348가구 ▲99㎡ B 48가구 ▲99㎡C 100가구 ▲99㎡D 326가구 ▲99㎡E 22가구 ▲145㎡(펜트하우스) 5가구다. 단지 북쪽에 금강과 수변공원이 인접해 조망이 좋으며 남쪽으로는 비학산이 있다.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이 인근에 있고 대전~세종시~오송역(KTX)을 순환하는 간선급행버스시스템인 BRT정류장이 단지 앞에 위치해 타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이외에도 교통호재가 잇따른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서울~안성 1단계 구간(71㎞) 2022년, 안성~세종 2단계 구간(58㎞) 2025년 개통 예정)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서울과 세종시 간의 통행시간이 7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주변 학군으로는 대평초등학교와 대평중학교 등이 2018년 개교 예정이다. 인근에 창고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 입점이 계획돼 있어 교통, 교육, 쇼핑 생활 인프라를 두루 갖추게 된다.

아파트와 함께 전체면적 1만7889㎡ 규모의 스트리트형 상가 세종 센트럴 애비뉴도 동시에 분양된다.

점포는 입지에 따라 A,B,C 3개 구역으로 배치된다. A구역은 금강변에 인접한 입지적인 장점을 살려 여가와 휴식, 먹거리가 결합된 카페거리로 조성하고 아파트 주출입구와 가까운 B구역은 입주민을 위한 병원, 학원 등 생활 밀착형 편의시설로 구성한다.

전 가구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된다. 대부분의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이 좋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이 들어선다.

단지 내외벽 대부분에 끊김이 없는 단열 설계를 적용해 열 손실을 최소화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설계도 눈에 띈다. 가족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실과 주방에는 일반 아파트보다 2배 가량 두꺼운 60㎜ 바닥 차음재를 설치해 층간소음을 예방한다. 아파트 입주는 2018년 6월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반포래미안 아이파크.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반포래미안 아이파크' 829가구

최고 기업들의 '콜라보'… 강남의 랜드마크 우뚝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서초한양' 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반포래미안 아이파크가 25일부터 청약을 시작했다.

단지는 반포동 학군과 생활환경의 입지에 국내 대표 브랜드인 아이파크와 래미안이 합작하는 사업인 만큼 강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문을 연 견본주택에는 지난 주말 3일간 1만5000여명이 다녀갔다. 서초·강남·송파 방문객이 64%(서초 41%, 강남·송파 23%)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서울 기타지역 30%, 그 외(경기도 등) 6% 순으로 이어졌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4층 11개 동 전용면적 49~150㎡, 829가구(임대 116가구) 규모다. 이 중 일반분양물량은 257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49㎡ 73가구 ▲59㎡A 46가구 ▲59㎡B 25가구 ▲84㎡A 194가구 ▲84㎡B 43가구 ▲99㎡A 124가구 ▲99㎡B 27가구 ▲112㎡A 100가구 ▲112㎡B 24가구 ▲130㎡A 107가구 ▲130㎡B 33가구 ▲150㎡A 33가구 등이다.

단지 옆에는 서원초와 반포고, 원명초 등이 있으며 원촌중, 세화고, 세화여고, 서울고, 은광여고 등도 인접해 있다. 단지에서 걸어서 5분 거리내에는 지하철 9호선 사평역이 있다. 이외에 2·3호선 교대역, 3·7·9호선 고속터미널역 등이 가깝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도 인근에 있으며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로를 통해 시내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반포IC도 가까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쉽다. 강남삼성병원, 차병원, 서울성모병원 등도 단지 인근에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이 모여 있는 서초법조타운도 자리잡고 있다.

단지 용적률은 284% 수준으로 낮아 동간 거리가 넓다.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는 피트니스, 독서실, 다목적홀, 커뮤니티 라운지 등이 들어선다. 일부 동에서는 현관에 라운지가 만들어진다.

건폐율(전체 대지면적 중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17% 대에 불과해 수경시설과 산책로 등 녹지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지하에 별도 창고를 마련하고 가구별로 제공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누릴 수 있다. 각 가구 주방 싱크대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투입구가 있어 분리하고 직접 버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청약은 26일 1순위, 27일 2순위가 진행된다. 당첨자 계약체결은 12월 8~10일 3일간 실시된다. 입주 예정일은 오는 2018년 8월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 2차' 투시도. /롯데건설

롯데건설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 2차' 1169가구

서울역까지 45분… 김포·일산·상암도 쉽게 간다

롯데건설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A27블록에 들어서는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 2차' 아파트의 잔여 세대를 분양 중이다.

지난 4월 분양한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 1차'의 후속 단지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4~29층 11개동 전용면적 59~91㎡ 116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59㎡A 249가구 ▲60㎡B 210가구 ▲60㎡C 220가구 ▲84㎡A 163가구 ▲84㎡B 115가구 ▲91㎡ 212가구로 구성된다.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가 전체 가구의 81.8%를 차지한다. 이미 운정신도시에 분양된 '해솔마을 롯데캐슬' 1880가구, '캐슬&칸타빌' 2190가구,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 1차' 1076가구와 함께 6315여 가구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파주 운정신도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최대 규모인 1652만 8000㎡의 신도시로, 운정신도시 3지구까지 완공되면 약 8만 7282가구가 거주할 예정이다. 약 72만㎡ 규모의 운정호수공원이 도보 이용 거리에 위치해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오름공원이 있으며, 한빛공원과 새암공원 등도 가깝다.

또한 예은유치원과 한빛중, 한빛고가 단지와 맞붙어 있으며 와석초도 가까워 통학이 안전하다. 아이들이 유치원 또는 학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승하차 전용 공간인 드롭오프존까지 설치돼 안전한 통학 여건이 한층 강화된다.

단지 내 컬처동에는 다목적홀과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이 들어선다. 스포츠동은 피트니스클럽·실내골프클럽·사우나·탁구장 등으로 구성된다.

단지는 전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사계절 채광을 확보할 수 있고 스마트 에너지모니터링·쓰레기 이송시스템 등도 설치돼 스마트 친환경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10월 31일 야당역 개통으로 주변 상업시설의 증가와 더불어 역세권 아파트로서의 투자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경의선 야당역 이용 시 서울역까지 약 45분안에 도착할 수 있다. 자유로, 제2자유로, 동서대로도 가까워 서울, 김포, 일산 등에 접근성이 높다. 특히 제2자유로를 이용하면 서울 상암동에 3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다.

지역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신도시 인근에 있는 LG디스플레이는 2018년까지 파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생산라인(P9)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견본주택은 파주시 야당동 920번지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오는 2018년 4월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경기 평택시에 세워질 평택 소사벌 호반베르디움. /호반건설

호반건설 '평택 소사벌 호반베르디움' 737가구

공간활용 쉬운 84㎡로 구성… 교육인프라 최대 강점

호반건설은 27일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지구 B11블럭에서 올해 지역 마지막 분양 물량인 '평택 소사벌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소사벌지구는 303만㎡ 면적에 1만6000여가구의 인구를 수용하며 세교, 동삭, 용죽, 현촌, 용이, 신흥 등 평택시에 조성되고 있는 택지지구 중에서도 미래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8개동 전용면적 84㎡ 737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589가구 ▲84㎡B 74가구 ▲84㎡C 7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택시장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로만 지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 전체가 전용 84㎡으로만 구성됐지만 전타입 4베이 설계를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가변형 벽체와 현관 창고, 팬트리, 김치 냉장고장, 대형 안방 드레스룸, 붙박이장(자녀 방) 등의 설계도 적용된다(타입별 상이). 주부들의 효율적인 동선을 고려한 주방 가구의 배치도 눈에 띈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어린 자녀를 위한 키즈카페, 북카페, 휘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 연습장, GX룸, 독서실 등이 마련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B11블록은 소사벌지구 내에서도 주거 편의성이 좋은 핵심 입지로 꼽힌다. 단지 인근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 학교용지, 중심상업지구 등의 인프라도 조성된다.

단지 옆 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으며 지구 내 다수의 교육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남측으로는 중심상업지구가 마련된다. 이외에도 뉴코아아울렛, 롯데마트, 평택시청 등이 인접해 있다. 평택역과 안성IC도 가깝다.

주변 개발 호재도 줄을 잇고 있다. 인근 고덕산업단지에 오는 2017년 삼성전자 산업단지가 100조원 규모 투자로 조성될 예정이다. LG전자 디지털산업단지 확장(진위2산업단지), 미군기지 이전 등도 진행되고 있다.

지제역에서 서울 수서역까지 이어지는 KTX 노선도 단지 인근에서 개통을 앞두고 있다.

호반건설 분양 관계자는 "소사벌지구 내에서도 인기 입지로 대기 수요가 많아서 분양 전부터 관심과 문의가 많다"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 84㎡로만 구성했고, 차별화된 상품을 마련해 좋은 반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030(비전고등학교 옆)에 있다. 입주는 오는 2018년 3월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9차 조감도. /반도건설

반도건설 '동탄2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9.0' 689가구

호수공원 품은 단지… '교육특화 학습관'도 눈길

반도건설이 동탄2신도시 특별계획구역인 동탄 호수공원과 인접한 A98블록에 공급하는 9번째 '반도유보라' 단지가 호수공원 생활권에서는 처음으로 전 세대가 순위 내에 마감됐다. 반도건설이 지난 19일부터 청약을 접수받기 시작한 '동탄2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9.0'이 1순위에 이어 2순위 청약결과 전 세대 마감에 성공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전체 688가구 모집에 1421명이 접수하며 평균 2.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101㎡와 104㎡의 경쟁률은 각각 1.83대 1과 1.89대 1 등으로 유사하게 집계됐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13개동, 689가구 규모이며 전용면적 93~104㎡ 프리미엄 평형 단지로 구성된다.

전용 93㎡ 는 가변형 벽체 적용으로 입주자의 가족구성 특성을 고려한 설계를 실현했다. 침실2, 3 사이의 가변형 벽체 미적용 시 자녀수에 따라 침실2개 혹은 큰 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알파룸을 침실로 선택 시에는 5룸까지 가능하다. 또한 알파룸, 드레스룸과 더불어 서재공간도 제공된다.

전용 101㎡는 전세대 4베이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좋다. 주방과 연계된 알파룸은 침실로 구성 시 침실을 4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알파공간의 벽체 오픈 시에는 확장된 주방 공간으로도 연출이 가능하다. 또한 알파룸, 드레스룸과 더불어 안방과 연계된 서재가 보너스 공간으로 마련된다.

전용 104㎡ 전세대 4베이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좋고, 입주자의 가족구성 특성을 고려한 실용적인 수납강화형 평면으로 서비스 면적을 최대한 활용했다. 현관에는 대용량 수납공간, 침실2에 붙박이장을 제공하며 안방에는 2개의 문으로 활용성을 극대화한 워크인(Walk-in) 드레스룸이 제공된다. 또한 알파룸, 드레스룸과 별도로 서재 공간이 제공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수요자의 만족도도 높였다.

단지 남쪽은 단독주택 부지로 조성돼 조망권이 확보됐으며 동탄 최대 규모의 자연친화적 공간이 될 동탄 호수공원 생활권에 공급된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반도건설의 교육특화 상품인 별동학습관이 단지 내 2층 규모로 들어서 교육 프리미엄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는 영어전문교육기관 YBM과 능률교육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동학습관을 통해 입주민에게 제공한다. 당첨자는 27일에 발표되며, 계약은 12월 2~4일 진행된다. 입주는 2017년 12월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컴프레션웨어 아시나요? 몸짱 열풍에 시장 수직상승

헬스·요가 등 운동 때 착용 의상
일상패션 진화 '애슬레저룩' 각광
이재용 부회장도 입어 인기 입증

미국·유럽 등지에서 유행하는 애슬레저 룩. 컴프레션 웨어는 이미 운동 보조복의 개념을 넘어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잡았다.

몸짱 열풍과 함께 헬스, 필라테스, 요가, 자전거 라이딩 등의 스포츠를 찾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서울 강남 한 피트니스센터는 지난 3년간 이용 고객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헬스열풍과 함께 운동 시 착용하는 '컴프레션 웨어'의 인기도 수직 상승 중이다. 최근에는 컴프레션 웨어가 일상생활에서도 즐겨 입는 패션으로도 발전하며 애슬래틱(Athletic)과 레저(Leisure)의 합성어인 애슬레저(Athleisure)룩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에슬레저 시장은 4000억원 규모로 전체 패션시장의 8%를 차지했다. 2018년에는 2조원대까지 급성장할 전망이다. 컴프레션 웨어는 운동 보조복으로 탄성이 강한 옷을 의미한다.

◆ 이재용도 입는 '언더아머'

언더아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입어 화제가 됐던 컴프레션 웨어 브랜드다. 이 브랜드는 미식축구 선수였던 케빈 프랭크가 경기 중 땀을 흘리면 무겁고 불쾌해지는 유니폼 안의 면티를 대신할 소재를 고민해 직접 개발한 브랜드다. 현재는 컴프레션 웨어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성장했다.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효성의 계열사인 갤럭시아코퍼레이션이 론칭해 독점 수입 판매하고 있다. 일명 '이재용룩'으로 알려지며 헬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국내 출시 4년만에 서울 강남, 청담 직영점을 비롯해 전국 백화점 내 3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타미카퍼는 2010년 미국에서 설립된 컴프레션 웨어 브랜드다.

창 립자 탐 칼리쉬가 수상스키를 타다 사고를 당해 전신에 큰 부상을 입은 후 개발하게 됐다. 탐 칼리쉬는 기존 답답하고 불편한 운동 보조복이 아닌 편안하고 일상에서 착용 가능한 슬리브를 직접 제작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그 효과를 입증 받아 타미카퍼 브랜드를 설립했다.

특히 구리와 아연이 함유된 타미카퍼만의 독자적 기술 '카퍼 지너지'(Copper Znergy™) 소재를 사용해 체온 조절효과는 물론 장시간 착용해도 땀냄새가 나지 않고 세균번식이 억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는 지난 7월 권용환 타미카퍼 한국 법인 대표를 통해 첫선을 보였다. 설립 3년 만에 미국 내 매출 800억원을 달성한 타미카퍼는 국내에서는 신세계몰 등 온라인몰과 일부 백화점에 입점돼 있는 상태다.

◆ 요가를 위한 제품 '룰루레몬 애슬레티카'

룰루레몬 애슬레티카의 창립자 칩 윌슨은 20년간 캐나다에서 서핑, 스케이트, 스로우보드 사업에 종사해왔다. 그는 처음 요가 수업을 듣고 면이라는 소재가 스트레칭이나 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직접 요가복 개발에 나서게 됐다.

1988년 요가복 전문 기업을 시작한 룰루레몬 에슬레티카는 2000년 미국 진출을 시작으로 기능성 스포츠 의류 브랜드로 급성장했다. 최고급 소재와 실루엣 그리고 편안한 착용감 때문에 요가복 업계의 샤넬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국내에서는 올해 청담동에 쇼룸을 기점으로 오픈했으며 최근 국내에도 부는 요가 열풍과 맞물려 동반인기를 얻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이미 미국, 유럽 등지에서 컴프레션 웨어는 에슬레저 룩으로 불리며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잡았다"며 "국내에서는 타이트한 옷으로 몸매를 드러내는 패션이 아직 자리잡지 못했지만 최근 운동 열풍 트렌드를 보면 조만간 국내에서도 컴프레션 웨어의 수요는 급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굽네치킨 '후르츄 소이갈릭'

'소근커플' 로고송 영상 1주일 만에 20만뷰 돌파

오븐구이 치킨 굽네치킨이 SNS 스타 '소근커플'과 함께 한 '굽네 후르츄 소이갈릭' 로고송 영상이 공개 1주 만에 조회수 20만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소근커플의 애교 넘치고 상큼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굽네 후르츄 소이갈릭' 로고송 영상은 소근커플의 굽네치킨 사랑을 개성 있는 노래로 보여주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영상은 굽네치킨 공식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으며, 굽네치킨은 영상 공개와 함께 '굽네 후르츄 소이갈릭' 로고송 영상 공유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이벤트는 굽네치킨 공식 페이스북에서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며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는 '굽네 후르츄 소이갈릭'을 증정한다.

영상에서 소근커플의 입맛을 사로잡은 '굽네 후르츄 소이갈릭'은 과일을 사용한 특징과 로맨스 콘셉트를 개성 있고 트렌디하게 표현한 제품으로, 사과와 레몬을 넣은 간장과 국내산 마늘을 첨가한 특제 소스를 오븐에 구운 치킨에 발라 달콤짭조름하고 깔끔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유현희 기자

아기 식탁의자 9900원… B급으로 득템

11번가

29일까지 리퍼브 상품 기획전
유아용품 최대 73% 할인 판매

11번가는 흠집, 색상 등 미세한 문제로 반품된 상품이나 전시 상품 등 이른바 '리퍼브'(Refurb) 유아용품을 최대 73% 할인 판매하는 '리퍼브 상품의 재발견' 기획전을 이달 29일까지 연다고 25일 밝혔다.

생활 흠집 상품으로 사용상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아기 식탁의자 '피셔프라이스 부스터'는 9900원, 층간 소음 해결을 위한 안전 매트 '아트비 폴더 매트'는 60% 이상 할인된 5만7000원에 판매한다. 3단계 변신이 가능한 '지나월드 뽀로로 부릉부릉 걸음마 붕붕카'는 3만8000원이다. 휴대성이 뛰어난 '페라리 프리마 절충형 유모차'와 '라스깔라 꼬미끄 휴대용 유모차는 각각 6만9000원, 8만8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또 모든 고객에게 모바일 앱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김성현 기자

'짬뽕 예찬'

외식업계 전문 프랜차이즈 봇물 식품업계 라면시장 대세 메뉴로

짬뽕 시장이 뜨겁다. 짬뽕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증가하고 짬뽕라면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2~3년 사이 짬뽕 전문 프랜차이즈가 크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짬뽕 브랜드만 25개에 달한다. 대표적인 짬뽕 전문 프랜차이즈는 100년 짬뽕, 니뽕내뽕, 상하이 짬뽕, 고구려 짬뽕, 마차이 짬뽕 등이다.

최근 생겨난 짬뽕 전문 프랜차이즈는 중식 프랜차이즈와는 차별화된다. 대부분 짬뽕과 짜장 등으로 요리보다 식사메뉴를 특화시켰다.

짬뽕라면 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오뚜기 진짬뽕·농심 맛짬뽕·팔도 불짬뽕 등 짬뽕라면이 최근 잇달아 출시돼 주목 받고 있다. 아울러 편의점도 소위 전국 5대 짬뽕집·서울 3대 짬뽕집으로 알려진 짬뽕 맛집과 손을 잡고 자사 브랜드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시되고 있는 짬뽕라면들이 정통 중국집에서 조리하는 맛과 비슷해져 구매율이 높아진 것 같다"며 "한동안 업계에서 짬뽕라면이 대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짬뽕라면 시장은 닐슨 코리아 조사 기준 약 1195억원(봉지·용기면 총합) 규모로 올해는 1200억원대 매출 안착이 무난할 것으로 동종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짬뽕라면류 브랜드는 총 13개에 이른다. /유선준 기자 rsunjun@

이스턴 &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코레일 관광개발

일정·시설·품격… 3박자 어우러진 레일 크루즈

코레일 관광개발, 고품격 해외철도 '이스턴&오리엔탈 익스프레스' 출시

방콕~말레이~싱가포르 관광 일정
객실 풀맨 기준 1인 584만7000원

코레일 관광개발은 고품격 해외철도 '이스턴&오리엔탈 익스프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

'이스턴&오리엔탈 익스프레스' 상품은 잘 짜인 여행일정과 열차시설, 럭셔리라는 3박자를 조화시킨 레일 크루즈 여행이다. 출발일은 12월 25일, 1월 3일·26일, 2월 7일·16일·25일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편으로 방콕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이스턴&오리엔탈 익스프레스'를 탑승해 기항지와 함께 종착지인 싱가포르를 관광하고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는 3박 5일 일정이다.

여행 첫날 방콕에 도착한 뒤 열차에 오르면 매일 밤 열리는 디너파티에 참석할 수 있다. 저녁시간에 맞춰 드레스 복장으로 환복한 뒤 식사를 하며 파티를 즐기면 된다.

이틀째 날은 왕포와 콰이를 지난다. 콰이강 역에 도착하면 현지에서 보트를 타며 콰이강 다리를 관광한다. 관광 후 버스를 타고 북부 사원과 전쟁박물관 등 2차대전의 유적을 둘러본다.

사흘째 날에는 말레이시아 페낭의 버터워스역에서 하차, 중심시가지인 조지아타운을 방문한다. 세계 2차대전 이전 모스크, 사원, 교회, 전통시장을 둘러보는 일정이다.

마지막 날 오전 종착역인 싱가포르에 도착한다. 싱가포르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 뒤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으로 이동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한다.

'이스턴&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1인 기준 상품가는 객실 풀맨을 기준으로 584만7000원이다. 각종 운임과 전 일정 식비,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 보험이 포함된 가격이다.

여행 관련 문의는 코레일 관광개발 홈페이지(www.korailtravel.com)에서 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이대목동병원

6회 연속 뇌졸중 치료 '최우수'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 만점

이대목동병원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5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아 6회 연속 뇌졸중 치료 전국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벌인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 100점 만점을 받았다. 의료 서비스 질이 우수한 기관에 부여하는 가산금까지 지급받았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는 외래진료 뿐만 아니라 응급실과 뇌졸중 집중치료실, 혈관 시술팀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ESC(Ewha Stroke Code) 시스템을 구축해 365일 24시간 가동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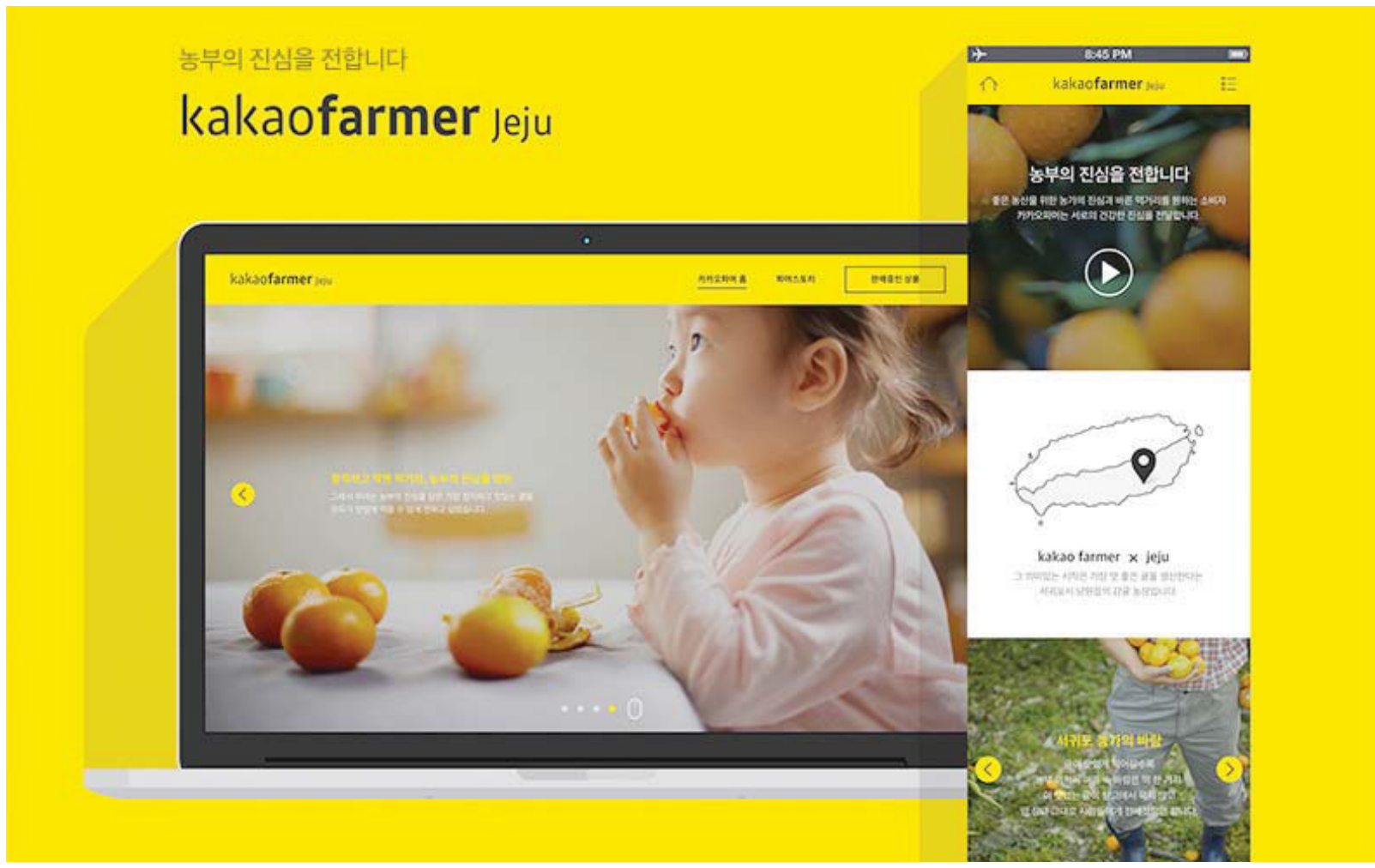
메이필드 호텔 '어반 노르딕'

맛에 취하고 멋에 물들고… 북유럽 감성에 흠뻑 젖는다

메이필드 호텔은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복잡한 북유럽의 감성을 담은 '어반 노르딕(Urban Nordic)' 패키지를 선보인다.

메이필드 호텔의 '어반 노르딕' 패키지는 슈페리어 객실 1박, 뷔페 레스토랑 '미슐랭' 조식 2인과 '무민(Moomin)' 정품 텀블러에 핫초코를 담아 제공한다. 또 메이필드 겨울 숲의 청량한 향기를 담은 오리지널 디퓨저(125㎖) '눈 내리는 숲'을 제공한다. '어반 노르딕' 패키지 예약 고객은 사우나를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수풀과 피트니스, KIDS CLUB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슈페리어룸 1박 기준 23만9000원(세금·봉사료 별도)이다.

한편 뷔페 레스토랑 '미슐랭'에서는 미식 트렌드로 자리잡은 북유럽 요리를 선보이는 '어반 노르딕 퀴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문의:02-2660-9000 /유현희 기자



“감귤농가·소비자 톡 합니다”

O2O 시대 프론티어

Oinline to Offline

카카오파머 제주 시선집중 ‘판로 확보’ 애먹는 농가위해 모바일직거래서비스 본격화

카카오의 농산물 유통 O2O 서비스 ‘카카오파머 제주’ 프로젝트의 이상근 팀장이 판매되고 있는 제주감귤 패키지를 들고 웃고 있다.

농가와 소비자 간 감귤 직거래를 연결해 주는 ‘카카오파머 제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카카오파머 제주는 제주감귤 유통사업에 뛰어든 카카오가 지난 10일 선보인 모바일 기반의 제주감귤 유통 O2O(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 서비스다. 3개월이라는 파일럿 기간을 정하고 운영되지만 향후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을 통한 유통혁신을 이루는 게 목표다.

서비스는 ‘가장 맛있는 농산물’을 선별해 ‘가장 맛있을 때’ 고객에게 전달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그 첫 프로젝트가 바로 제주 감귤 유통이다.

제주 감귤 유통 프로젝트를 만들어낸 카카오의 이상근 팀장은 “지난 10년 동안 제주에 정착하면서 제주도의 대표 농산물인 고품질 감귤 유통을 촉진해 농가소득 증대를 이루겠다는 내부적인 고민이 있었다”며 “그 고민들을 해결하고자 만들어낸 노력물이 카카오파머 제주”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제주에 있는 기간 감귤농가의 힘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감귤농가는 감귤 생산 이후 마케팅과 판매 차별화에 대한 어려움에다 수입농산물과의 경쟁 심화를 겪고 있었다.

카카오는 감귤 가격 폭락으로 고민하는 농가의 수익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 지역의 대부분의 농가는 자체적인 판로 확보가 쉽지 않아 농산물 경매나 중간 유통 상인을 통해 감귤을 판매하고 있다. 이 경우 유입 물량에 따라 감귤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카카오파머 제주는 판매물량 등을 감안해 기존 유통시장에 형성된 수준의 가격으로 감귤을 매입해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이 팀장은 “카카오는 자체 기술력과 브랜드 경쟁력으로 모바일 시대에 맞는 농산물 유통플랫폼 서비스를 만들어 국산 농산물이 수입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건강한 농산물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농산물 구매에 친밀해지는 20~30대

카카오파머 제주는 모바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에 익숙한 2030세대의 핵가족층을 타깃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카카오파머 제주가 판매하는 감귤은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핵가족층을 구매 대상으로 잡은 만큼 패키지도 5kg의 소포장으로 하고 있다. 제주감귤에 대한 정보를 담은 리플렛과 스티커, 차별화된 패키지 디자인도 기존 유통과 차별화했다.

이 팀장은 “무엇보다 카카오파머 제주 파일럿 종료 이후 데이터를 제주도내 감귤 유관기관이 공유하도록 해 감귤사업의 명품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카카오파머 제주가 파일럿 기간 목표로 잡은 판매량은 하루 약 1000박스, 총 750t 가량이다. 이는 제주감귤 전체 생산량의 약 0.14%에 해당한다. 750t은 기존 유통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한 수치다.

이 수치는 농가의 반응과 사업적으로 의미있는 지표를 확인하기 위한 물량이다. 또 카카오가 임대한 선과장(과실을 선별해 포장하는 곳)의 하루 처리 물량을 감안한 수치다.

◆ 감귤 직접관리… 농가 반응 ‘우호적’

카카오파머 제주는 감귤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년간 현지에서 유통을 경험한 전문가와 함께 선과장도 직접 운영한다. 소비자는 일조량이 많아 당도와 산도가 적절히 배합된 서귀포산 고품질 감귤을 당도가 가장 높은 3일부터 7일 사이에 받아 볼 수 있다.

현재 카카오파머 제주와 거래하는 농가는 20여곳. 농가의 반응이 우호적이라 입소문이 퍼지면서 직접 연락을 주는 농가도 생겼다.

이 팀장은 농가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 “서비스가 지향하는 지점이 카카오의 수익 극대화보다는 농가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감귤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바꾸겠다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추가 매입을 의뢰하는 농가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귤농가는 차별화된 브랜딩과 유통채널의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파머 제주는 농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감귤을 매입하고 카카오 브랜드와 플랫폼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농가의 판매 채널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카카오파머 제주는 국내 유통만을 고민하고 있다. 취급하는 품목은 내부 논의 중이나 파일럿 기간이 끝난 뒤에야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듯 하다.

이 팀장은 “파일럿 기간이 끝난 뒤에 실제로 농가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지역의 기존 유통망에 미친 영향은 어떤지,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향후 계획을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카카오파머 제주 패키지

제작 | 그림자story www.grimzastory.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1	7	2	4	3	8	6	5	9
5	8	4	6	9	1	7	3	2
3	1	9	7	5	2	8	4	6
2	4	1	3	7	6	5	9	8
5	9	7	4	1	6	3	8	2
7	6	3	8	5	2	9	1	4
9	6	3	2	8	7	1	5	4
4	8	2	1	6	5	9	7	3
1	7	5	9	4	3	6	2	8

9	3	2	5	6	1	8	4	7
8	2	5	9	3	7	1	6	4
4	7	1	2	8	9	5	3	6
6	1	9	2	3	8	4	5	7
5	3	4	9	1	7	6	8	2
2	8	7	4	6	5	9	1	3
3	6	5	8	9	2	1	7	4
9	2	1	4	7	3	5	9	8
7	4	8	6	5	1	3	2	9

1	7		9	4				
								3
9	6		2		7			
					9			7
5	9			1			8	2
2			3					
			7		2		4	6
8								
				3	4		9	1

8		6						1
1	7				9			
	9	3						5
2				4	6			
	1		2	3	8		5	
			9	1				2
3						1	7	
			4				6	8
7						2		9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국가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려 합니다
2016년까지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할아씨 여자 52년 양력 9월 11일 14시

Q 선생님 저는 스포츠 월드신문에 칼럼으로 매일 연재되고 있는 '풍경소리'에서 선생님존함을 익히 알고 있는 1952년생 여자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뒷방에 할머니로 구들방 신세나 지고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가씨 같은 사람도 있는 세상입니다. 영양상태가 좋고 발달한 의술에 힘입어 늙은티 전혀 없이 사회생활도 잘하고 있으니 신조어로 할 아씨라고 하지요. 남자는 나이 60이 넘으면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지만 여자는 몸만 건강하면 얼마든지 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국가 자격증 시험을 보려고 준비 중인데 시험 운이 있는지 봐주세요.

A 운이 있는 사람과 운이 없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분류해볼 때 우선 쉽게 먼저 돈으로 다가가 본다면 부자의 집이 가난한 사람의 집보다 훨씬 청결합니다. 빈부가 극도로 갈리는 상황이 아니어도 가령 같은 평수의 아파트 두 가구의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면서 더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집이 상대적으로 부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현관이 지저분하다거나 대문 입구에 폐품이나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는 집은 볼 것도 없이 상태가 좋지 않은 시그널로 받아들입니다.

가정이나 기업을 막론하고 진단할 때면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기운으로 그곳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지요. 느껴지는 기운이라는 게 특별치 않습니다. 누구나 현관 입구가 청결하면 상쾌함을 느끼는 법이고 그것은 자신의 얼굴에도 그대로 나타나며 재물에 대한 언급만이 아니라 시험 운 또한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기타 시험 운은 장생 궁(長生 宮)에 있어 2016년까지 운을 기대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시험과목을 모르겠으나 혹여 시험이 되지 않는다면 실망하지 말고 명리학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월(月)에 '은성(銀星:서쪽에 빛나는 별)'과 같은 형상의 사주구조이니 명리학(命理學)에도 남다른 장점을 발휘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역(易)안에 포함된 명리를 공부해보면 풍수와도 이어지는 학문이니 접해보시면 현재 갖고 계시는 긍정의 세계가 더욱 폭넓게 매사를 부드럽게 넘기게 되면서 반드시 운세가 더욱 상승 합니다.

차후 2017년도의 기운은 이성 운이 시지(時支)에 남자로 홍염살(紅艶殺)은 도화(桃花)와 유사하여 외정이 두터워 연하의 상대와 연애하기도 하니 참고 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신점[神占] 운세

11월 26일 (음 10월 15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집 매매는 다음으로 미루세요. 60년생 책임을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72년생 지치지 않고 끈기 있게 해결하세요. 84년생 남의 일을 돕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 49년생 노력의 대가가 눈앞에 있습니다. 61년생 원만한 대인관계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73년생 남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85년생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하세요.

호랑이 50년생 설득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2년생 건강을 주의하세요. 74년생 공들인 노력은 끝내 이루겠습니다. 86년생 중심을 잃지 마세요.

토끼 51년생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 실천하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63년생 지금 성공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75년생 성공이 결정되어 있으니 열심히 추진하세요. 87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용 52년생 성공의 길은 단 한가지 장애물을 없애야 합니다. 64년생 더 넓은 시야에서 세상을 바라 보도록 하세요. 76년생 업무에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88년생 이직운이 있으나 신중하세요.

뱀 53년생 지금은 물량이 부족합니다. 65년생 주위의 신뢰를 얻으세요. 77년생 모든 일에 근본은 정직입니다. 89년생 귀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말 54년생 해외여행을 떠나세요. 66년생 위험에 빠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78년생 대성과를 얻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90년생 까딱 잘못하면 도리어 그르치게 됩니다.

양 55년생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위태로워 집니다. 67년생 이익을 바라는 마음이 들게됩니다. 79년생 자중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지도 모릅니다. 91년생 본업에 충실하세요.

원숭이 56년생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면 안됩니다. 68년생 상상이외의 지출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80년생 사소한 재물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92년생 중심을 잡아야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닭 57년생 사람은 기본을 잘 지켜야 합니다. 69년생 혼란의 와중에서 겨우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1년생 내부를 견고히 하세요. 93년생 본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주력해야 하는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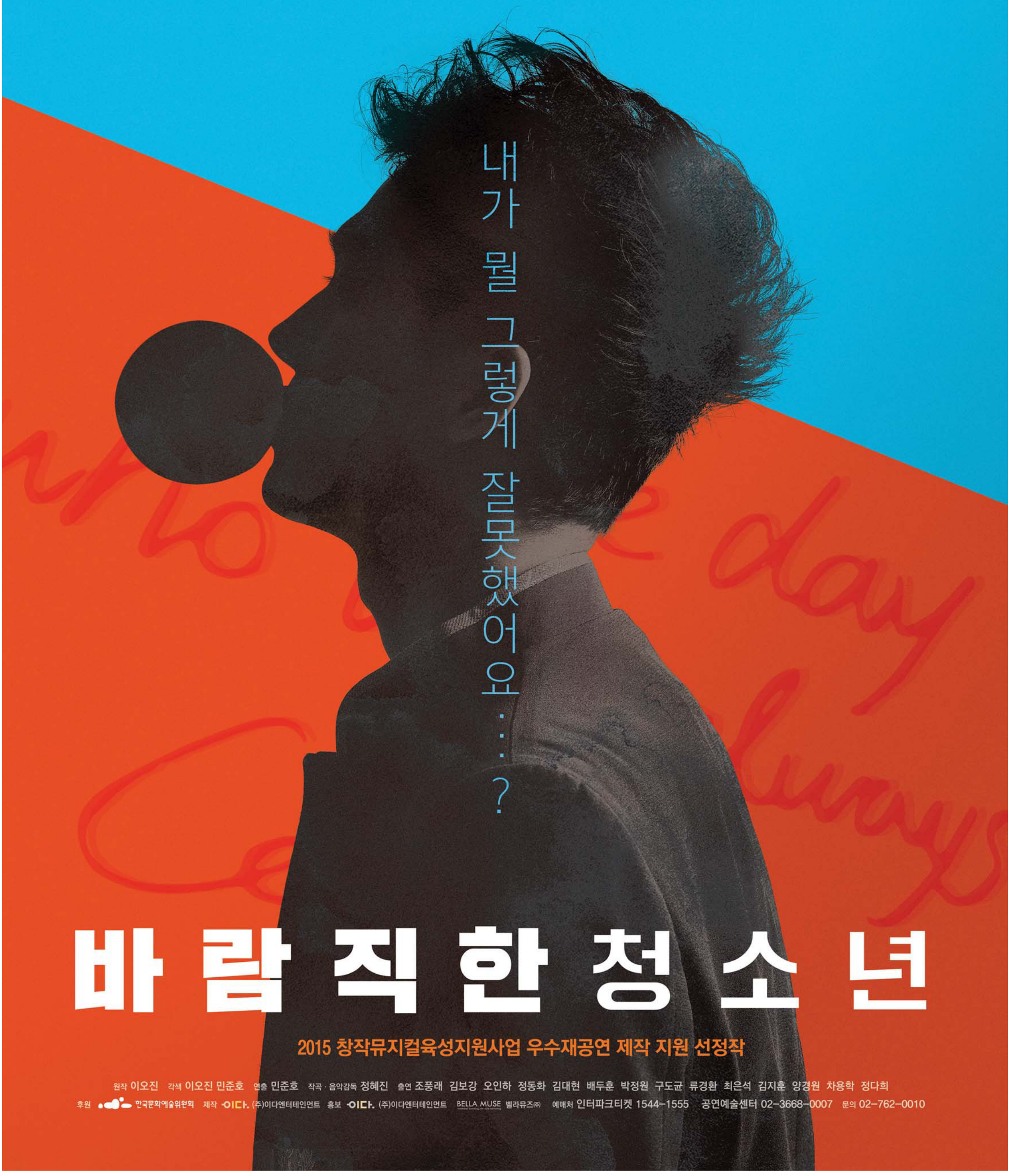
개 58년생 재물이 집에 들어오지만 반은 잃고 반만 남았습니다. 70년생 부모님에게 안부전화를 하도록 하세요. 82년생 조상을 잘 모셔야만 나쁜 일을 면합니다. 94년생 금전운이 좋지 않습니다.

돼지 59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으니 밀고 나아가세요. 71년생 오래 묵힌 감정이 점차로 얼음 녹듯 녹아갑니다. 83년생 속이 시원하게 되는 때입니다. 95년생 진취적인 기운이 솟아납니다.

2015.
12.4(Fri) ~
12.20(Sun)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평일 8시
토 3시, 6시 30분
일 2시, 5시 30분
월 쉼



바람직한 청소년

2015 창작뮤지컬육성지원사업 우수재공연 제작 지원 선정작

원작 이오진 각색 이오진 민준호 연출 민준호 작곡·음악감독 정혜진 출연 조풍래 김보강 오인하 정동화 김대현 배두훈 박정원 구도균 류경환 최은석 김지훈 양경원 차용학 정다희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작 이다. (주)이다엔터테인먼트 홍보 이다. (주)이다엔터테인먼트 BELLA MUSE 벨라뮤즈㈜ 예매처 인터파크티켓 1544-1555 공연예술센터 02-3668-0007 문의 02-762-0010

싸이, 7집 앨범은 '칠집싸이다'

'나팔바지' '대디' 더블 타이틀곡
내달 1일 음원·뮤직비디오 공개

가수 싸이가 7집 앨범의 타이틀을 공개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25일 자정 공식 블로그를 통해 '칠집싸이다'라는 글자가 새겨진 숫자 '7'과 일곱 개의 별, 그리고 익살스러운 싸이의 캐리커처 이미지가 담긴 포스터를 게재했다.

이에 앞서 싸이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개인방송 '싸이 리틀 텔레비전'을 통해 7집 앨범 타이틀곡인 '나팔바지'와 '대디(DADDY)'를 소개했다. '나팔바지'는 국내 팬들을 위한 노래이며 '대디'는 해외 시장을 겨냥한 노래다.

이날 방송에서는 앨범 수록곡 중 하나인 '아이 리멤버 유(I Remember You)'의 일부가 최초로 공개됐다. '강남스타일'의 유건형과 공동 작곡을, 에픽하이의 타블로와 공동 작사를 한 노래다. 자이언티가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싸이는 "80년대 신스팝 느낌으로 편곡해 옛날을 추억하며 아련함을 담은 노래"라고 소개했다.

싸이의 7집 앨범 '칠집싸이다'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는 다음달 1일 공개된다. 싸이는 다음달 2일 홍콩에서 열리는 '2015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MAMA)'에 참석해 신곡을 선보인다. 이어 다음달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연말 콘서트 '올나잇 스탠드 2015-공연의 갓싸이'를 개최한다. /장병호 기자

도리화가 주인공, 제 연습생 시절과 닮았어요

스타인터뷰 영화 '도리화가' **수 지**

'건축학개론' 개봉 즈음 인터뷰에서 수지(21)는 "아이돌이 아닌 아티스트가 꿈"이라며 당찬 모습을 보였다. 3년이 지나 '도리화가'(감독 이종필)로 다시 만난 수지에게 그때의 이야기를 꺼냈다. "제가요? 별 이야기를 다했네요(웃음).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만 꿈이 그때보다 조금 더 소탈해졌어요." 어릴 때는 막연하게나마 큰 무대 위에 서는 것을 꿈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20대 초반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수지는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고 있다. '도리화가'의 진채선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도리화가'는 조선 후기 판소리의 대가인 신재효와 그가 키워낸 최초의 여류 소리꾼 진채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여성은 소리를 할 수 없다'는 금기를 깨고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진채선의 성장담, 그리고 스승인 신재효를 향한 존경과 애정이 한 폭의 수묵화 같은 아름다운 영상으로 펼쳐진다. 수지는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자신과 닮은 점이 많은 진채선에게 마음이 움직였다. 연습생 시절의 기억이 많이 떠올랐다.

"JYP 연습생이 되기 전 댄스 동아리에 들어갔었어요. 부모님의 반대가 컸죠. 그런데 정말 힘들게 연습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JYP 연습생에 들어간 뒤에는 저 혼자 주말에 서울까지 올라와 연습했어요. 남들보다 못한다는 생각에 억울하기도 했죠. 남들보다 일찍 연습에 나가 남들보다 늦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도 실력이 늘지 않아 서럽고 속상했고요. 그렇게 한계에 부딪혔던 순간의 기억들이 이번 영화를 하면서 많이 떠올랐어요."

시나리오 읽으며 마음 뜨거워져
연습생 시절 떠올리며 캐릭터 공감

악바리 근성으로 노래·연기 도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어

그러나 촬영을 준비하면서부터는 또 한 번 '멘붕'의 연속이었다. 판소리부터 그랬다. 박애리 명창으로부터 1년 가까이 판소리를 배웠다. 표준어였던 대사도 촬영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전라도 사투리로 바뀌었다.

"감독님은 제가 광주 출신이니까 그냥 찌르면 사투리가 나올 줄 아셨나 봐요(웃음). 하지만 저는 사투리가 오히려 좋았어요. 채선이의 순박함과 당찬 모습이 더 잘 표현됐으니까요."

판소리라는 꿈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리고 스승을 향한 존경과 사랑이 뒤섞인 애틋함을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배우 경험이 있는 이종필 감독의 친절한 디렉션이 도움이 됐다. 그렇게 수지는 진채선의 복잡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해냈다.

수지가 가수로서 지금과 같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악바리 근성 때문이었다. 연기도 마찬가지였다. 데뷔작인 드라마 '드림하이'에서 부족한 연기력으로 지적도 많이 받았다. 그럴수록 "더 잘 하고 싶다"는 욕심이 강하게 생겼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

지금은 달라진 부분도 많다. "저 자신에게 엄격해요. 예전에는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채찍질만 하면 제가 먼저 지치겠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어요(웃음)." 예전에는 막연한 마음으로 알 수 없는 꿈을 쫓았다. 그러나 지금의 수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있다. 20대가 그렇듯 수지도 성장하고 있다.

"예전에 쓴 일기랑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바뀐 점이 많더라고요(웃음). 그때는 무조건 큰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해야 할 것만 같았어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채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음악도 잔잔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음악은 큰 무대에서 할 수 없잖아요. 어렸을 때는 내 꿈과 내가 원하는 것이 사실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에게 맞는 것,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하루 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어요."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TV 하이라이트

기존 이미지 벗고 웃음 선사

◆ KBS2 '해피투게더3'

오후 11시10분

배우 윤소희·이계인, 가수 소진·솔비·김흥국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그동안 숨겨온 매력을 발산해 기존 이미지 탈피에 나선다. 윤소희는 이계인을 "목소리 특이한 사극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해 웃음을 자아낸다. 이계인은 "결혼식 주례를 본 적 있는데 모팔보 버전으로 해달라더라"라고 사극 이미지로 곤란했던 사연을 털어놓는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tvN	OCN	채널CGV
05:00 KBS 뉴스		05:00 MBC 뉴스	05:00 SBS 5 뉴스				05:50 루퍼
05:10 내 고향 스페셜 남도지오그래피		05:10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	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06:00 응답하라 1997 (재)	06:00 집밥 백선생 오늘 뭐 먹쥬?	
06:00 KBS 뉴스광장	06:00 2TV 아침 1부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00 모닝와이드 (1~3부)	06:00 힐링의 품격 (재)	07:50 수요미식회 (재)	06:20 응답하라 1997 (재)	
07:50 인간극장	07:00 2TV 아침 2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7:00 쿵푸 공룡수호대 (재)		07:40 수요미식회 (재)	08:00 늑대아이
08:25 아침마당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7:50 내일도 승리	09:10 좋은아침	07:30 JTBC NEWS 아침 &			
09:30 KBS 뉴스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10:00 SBS 뉴스		09:10 응답하라 1988 (재)	09:00 응답하라 1988 (재)	10:10 더 웹툰:예고살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9:40 여유만만	09:30 MBC 생활뉴스	10:30 SBS 생활경제	09:0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재)			
11:00 특집 무형유산 6마당	10:40 지구촌 뉴스	09:40 기분 좋은 날	11:10 청담동 스캔들	10:30 비정상회담 (재)			
우리 전통의 멋과 흥	11:00 다 잘될 거야 (재)	11:00 내 딸, 금사월 (재)	11:50 SBS 12뉴스	11:55 타인의 취향 (재)	11:00 응답하라 1988 (재)		
12:00 KBS 뉴스 12	12:15 인간극장 스페셜	12:00 MBC 정오뉴스			12:40 집밥 백선생 (재)		12:20 티끌모아 로맨스
13:00 역사저널 그날		12:20 엄마 (재)	12:50 자기야-백년손님 (재)	13:15 냉장고를 부탁해 (재)		12:40 집밥 백선생 (재)	
13:50 세계가 품은 한국의 미 (재)	14:00 KBS 뉴스타임	13:30 2015 청소년 푸른 성장 대상		14:35 JTBC 뉴스 현장	14:1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4:40 우주전쟁
14:00 청년 대한민국 번쳐는 맛있다	14:10 생활의 발견 (재)	14: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스페셜	14:00 TV 동물농장 (재)				
15:05 다문화 희망 프로젝트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00 MBC 뉴스	15:00 3시, 뉴스브리핑	15:50 4시 사건 반장		14:1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네 꿈을 펼쳐라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5:10 헬로키즈 싸이걸스 (재)			16:00 할매네 로봇 (재)		17:00 인크레더블 헐크
16:00 오늘의 경제	16:00 TV 유치원	15:55 프리파라				16:00 할매네 로봇	
16:20 TV, 책을 보다 (재)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25 아름다운 당신 (재)	16:30 꾸러기 탐구생활	17:10 5시 정치부 회의	17:20 코미디 빅리그 (재)	17:20 코미디 빅리그 (재)	
17:00 KBS 뉴스 5	16:40 동물의 세계	17:00 MBC 이브닝 뉴스	17:00 변신자동차 또봇				
17:20 시사진단	17:00 위기탈출 넘버원 (재)		17:30 SBS 뉴스 퍼레이드				
18:00 6시 내고향	18:00 글로벌24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8:00 생방송 투데이	18:3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재)		18:50 수요미식회 (재)	
18: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8: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9:20 돌아온 황금복	19:55 JTBC 뉴스룸	18:50 수요미식회 (재)		19:20 나도 영화감독이다 2
19:00 KBS 뉴스 7	19:50 다 잘될 거야	19:15 위대한 조강지처	20:00 SBS 8 뉴스			20:20 어쩌다 어른	20:50 주말 N 영화
19:30 한국인의 밥상	20:30 2TV 저녁 생생정보 2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제36회 청룡영화상		20:20 어쩌다 어른		
20:25 우리 집 꿀단지	20:55 비타민	20:55 아름다운 당신	21:55 제36회 청룡영화상	21:30 최고의 사랑	21:4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2	21:4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2	
21:00 KBS 뉴스 9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신세계
22:00 명견만리	22: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22:00 달콤살벌 패밀리	23:05 자기야-백년손님	22:50 썰전		23:0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23:00 KBS 뉴스라인	23:10 해피 투게더	23:10 위대한 유산			23:00 슈퍼스타K7		
23:40 을미사변 120년		24:20 MBC 뉴스 24	24:35 나이트라인	24:2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재)		24:50 처음이라서	24:30 폴리스 스토리 2014
명성황후를 다시 보다	24:45 스포츠 하이라이트	24:45 MBC 다큐프라임	24:55 풋볼매거진 골!		24:50 처음이라서 (재)		

26일(목)

폴크스바겐이 고자세인 이유

윤휘종의
잠시 쉼표

지난 2013년, '수타페'란 말이 인터넷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다. 현대자동차가 선보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산타페에서 비가 오면 실내로 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네티즌들이 비아냥대며 붙인 별명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현대차에 거센 항의와 함께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현대차는 공식사과를 하고 무상수리와 보증기간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으며 사태를 수습하느라 진땀을 뺐다.

최근에는 글로벌 자동차기업 폴크스바겐이 소비자들을 속여 전세계가 떠들썩했다. 폴크스바겐뿐 아니라 계열사인 아우디의 거의 모든 차량들에 대해 배기가스를 조작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제조과정에서의 실수나 결함 차원이 아니었다. 최고경영진에서부터 엔지니어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개입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소비자들을 속인 일종의 범죄였다. 세계 각국은 정부 차원에서 사기행위로 기소를 하거나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폴크스바겐 측은 이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 소비자에게는 피해보상과 상관 없이 1000달러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폴크스바겐 구매자들을 중심으로 불매운동과 항의가 잇따랐다. 심지어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1000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조치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폴크스바겐 구매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도 나타났다. 이 사건 이후 국내 폴크스바겐 자동차의 판매가 오히려 급증했다는 것이다. 영업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대 1800만원 가까이 할인해준다고 하자 너도나도 '이참에 외제차를 타보자'며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만난 모 대기업 직원도 가격 할인조건이 끌린다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외제차를 사겠냐며 폴크스바겐의 SUV를 구입하겠다고 했을 정도다.

그 결과, 폴크스바겐의 지난달 판매량은 947대였지만 이달엔 3500대를 넘겼다고 한다. 특히 이달 판매수치는 폴크스바겐코리아 설립 이래 최고의 판매를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배기가스 조작파문으로 이미지가 훼손되자 파격적인 구매조건을 제시한 것이 주효했던 셈이다.

폴크스바겐뿐 아니라 수입차 전반적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국내 수입차 판매량은 지난해 전체 판매량과 맞먹는 19만6000여대에 이른다. 2011년 국내 수입차 10만대 시대에서 4년 만에 2배나 성장한 것이다. 유명 브랜드에 대한 동경과 적당한 과시욕이 합쳐져 수입차를 찾게 되고, 그런 심리를 이용해 중산층들도 구매할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의 모델을 내놓은 것이 맞물려 수입차 20만 시대를 연 셈이다.

어찌보면 소비자들은 '봉'을 자처한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차값의 20% 가량을 깎아준다는데 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어찌보면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가 폴크스바겐을 고자세로 영업하게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

환경부가 26일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 이후엔 국토부가 연비조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정부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소비자 반응이 궁금하다.

/산업부 부장

社說

국책은행 책임경영 시급

대우조선을 비롯한 조선산업의 부실화로 국책은행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자본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도에도 금이 갔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지난 9월 말 기준 BIS비율이 9.44%로 올들어서만 1.06%포인트 하락했다. 은행 중에 하락폭이 가장 컸고 유일하게 10%를 밑도는 은행이 됐다.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10%를 밑돈 적이 있는데 증자를 통해 간신히 10%대를 회복됐었다. 그런데 불과 6년만에 다시 추락했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더욱이 내년부터 바젤3협약이 시행되면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은 더 악화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이 수출입은행에 대해 서둘러 자본수혈을 단행한다고 한다. 산업은행이 수출입은행에 5000억원 규모로 추가 출자한다는 것이다. 수은의 최대주주인 정부도 추가 출자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이후 3년만에 공적자금이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산업은행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산업은행의 BIS비율은 아직까지 14%를 넘는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으로서의 산업은행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이다. 대우조선을 비롯한 대형 조선업체들의 수주에 대해 수익성평가도 제대로 안되고 분식회계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의 대주주이면서도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9월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우조선의 부실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추상같은 책임추궁이 잇따랐다. 하지만 그 때 뿐이었다. 분식회계와 부실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수출촉진과 산업발전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처럼 국책은행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추궁 없이 넘어갈 경우 앞날도 안심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바보경영'은 되풀이되고 자본건전성 악화와 긴급자금 수혈이라는 악순환이 재연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이들 대형 국책은행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역할과 기능조정을 포함한 악순환 방지책이 확실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국책은행에도 책임경영 풍토가 시급하다.

정주영 도전·개척정신 되새겨야

기자 수첩
양 성 운
〈산업부〉

'이봐 해봤어?'

아산(峨山)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가장 유명한 어록이다. 도전하지도 않고 불가능을 먼저 예단하는 이들에게 되물었던 정주영 명예회장의 이 한마디는 현재에도 한국을 대표하는 경영인 어록으로 꼽히고 있다.

이 같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도전 정신은 오늘날 많은 경영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허리를 책임져야 하는 2030 세대에겐 이같은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구직을 단념하거나 포기하는 젊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실제 올해 국내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면서 국내 15~29세 청년 중 '니트족'의 비중이 18.5%에 달한다고 한다. 니트족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구직을 포기한 사람을 뜻한다.

이처럼 수많은 청년들은 구직을 단념한 채 '헬조선'이니 '지옥불반도'라는 등 자조의 소리만 하고 있다.

물론 정주영 명예회장이 성공신화를 써내려갈 당시 시대와 현재 상황, 현실이 다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성공한 사업가나 직장인은 도전 정신과 개척정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취재를 다니며 기자가 만난 직장인 중 특진 제도가 거의 없는 국내 A 기업에 다니는 한 직장인은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로 완성하면서 동기보다 빨리 부장 자리에 올랐다.

또 사업가 중에는 하형석 미미박스 대표가 있다. 하 대표도 오기와 도전 정신으로 '무에서 유'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한국 출신 스타트업 최초로 미국 실리콘밸리의 '와이컴비네이터(YC)'에게 추자를 받았다.

그는 "역사는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탐험하고 발견하는 자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스스로 채찍질한 정주영 명예회장 처럼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은 '도전·개척 정신'에 대해 되짚어 봐야 할 때다.

/ysw@

美에 UHPC기술 전한 이호신 아이오와대 교수

〈초고성능콘크리트〉

뷰캐넌 카운티 다리 완공에 도움
"창조경제에 앞장서 보람 느낀다"

실험으로 UHPC 기술을 검증해 뷰캐넌 카운티에 전달한 이호신 아이오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가 지역 방송인 KWWL 방송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아이오와 주 뷰캐넌 카운티의 페어뱅크 인근에 지난 10일(현지시간),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초고성능콘크리트(UHPC) 기술로 제작된 다리가 들어섰다.

한국의 UHPC 기술이 미국 시장에 선을 보이는데 이호신(57·미국명 데이비드 리) 아이오와대학 토목환경공학과 교수가 산파 노릇을 했다.

서울대 토목공학과 출신인 이 교수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과 오스틴 텍사스 대학에서 차례로 석·박사를 따고 1999년부터 아이오와대 강단에 섰다. 2011년에는 제40대 재미과학기술자협회(KSEA) 회장을 역임한 중견 학자다.

현재 출장차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이 교수는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5월 초 KICT가 뷰캐넌 카운티 다리를 제작하는데 UHPC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해 제작에 참가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 연구팀은 미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기술과 소재의 표준에 맞는지를 검증하고자 UHPC 기술로 실험에 임했고, 표준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뷰캐넌 카운티에 전달했다.

이 교수 연구팀의 검증을 거쳐 뷰캐넌 카운티는 건설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자체 설비와 인력을 동원해 6개월 만에 호크 아이 UHPC 다리를 완공했다.

이 교수는 "UHPC의 가격이 비싸 미국에서도 아직은 보편화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신소재로 파악한 연방 기관이 연구소에서 현재 실험 중"이라고 소개했다.

보통 콘크리트보다 UHPC의 값은 비싸지만, 미국 연방도로관리청은 유지·보수비 절감, 낮은 물스밈성, 내구성, 균열방지 등의 효과가 탁월하다고 홍보했다.

이 교수는 "아이오와를 비롯한 중서부 지방의 지자체는 신소재를 활용한 새로운 건설 기법에 열린 태도를 보인다"면서 "재미 과학자로서 우리의 기술을 미국에 소개하는 '창조경제'에 앞장서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관련 기술을 미국에 알리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댈러스=연합뉴스

행정소송 시 알아둬야 할 것

생활법률

청구기간 확인하며 진행해야
기간 도과되면 소청 제기 못해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려는 소송절차를 의미한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대응은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그 다음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두 부분의 절차를 중복적으로 거칠 필요는 없다.

절차를 거칠 때는 반드시 청구기간을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처분이 있게 되면 이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의 경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취소소송의 경우).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내용을 다퉈볼 기회조차 상실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쉽게 정리하면 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혹은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은 임의적인 절차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도로교통법 위반 또는 국세 등 처분에 대해선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선준 기자 rsunjun@

인사

◇대한제당 △대표이사 사장 김영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상임이사 변호석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 임영훈

부고

▲한석주씨 별세, 한창호(인하대 초빙교수 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PD)·경아(부평세림병원 의사)·정아(주부)·창율(언론노조 한국경제TV 지부장 겸 경제팀 기자)씨 부친상, 박경완(테라세미콘 부장)씨 빙부상 = 25일 0시7분, 순천향대학부천병원 장례식장 특3호, 발인 27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송도 흥륜사 정토원 032-327-4444

▲김수오씨 별세, 김경남(한국경제신문 과장)씨 부친상, 문홍기(동신산업 부장)씨·전우용(두산인프라코어 밥캣홀딩스 차장)씨 장인상 = 24일 오후 10시, 서울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26일 오후 1시 02-2002-8444

▲ 곽영교 씨 별세, 성낙종(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장)·낙두(전 두산중공업 상무)·낙관(안동병원 영상의학과장)씨 모친상 = 25일 오전 5시, 대구 모레아장례식장 영생 103호, 발인 27일 오전 8시 053-801-9999

▲ 손일현씨 별세, 손태정(안양시 세정과장)·태호(세무사)·태민(해외주재)씨 부친상 = 24일, 경기 안양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1층 귀빈실, 발인 26일 오전 9시. 031-449-9000

▲ 김사열(전 육군 대령·미국 거주)씨 별세, 김영기(미국 JK아키텍쳐 대표)·헌숙·영숙·관숙·미리씨 부친상,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 대표)씨 장인상 = 25일 오전 2시, 미국 메릴랜드주 저먼타운, 발인 27일 오전 9시. 010-4768-287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송필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28일 세계 최강 파이터 가린다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

헨더슨·추성훈·김동현 등 이종 격투기 스타 빅 매치

오늘 저녁 출전 선수 사인회 옥타곤 체험·펀치 챌린지도

28일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 대회에 출전하는 김동현(왼쪽부터), 벤슨 헨더슨, 추성훈 선수.

벤슨 헨더슨, 추성훈, 김동현 등 이종 격투기 스타들이 오는 28일 한국에서 빅 매치를 갖는다.

세계 최대 종합 격투기 단체 UFC는 오는 28일 오후 6시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 대회를 개최한다. UFC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세 번째 이벤트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의 이종 격투기 팬들이 기대할 매치업이 가득하다. 전 라이트급 챔피언인 한국계 선수 벤슨 헨더슨(미국·22승5패)은 조지 마스비달(미국·29승9패)과 웰터급 메인 이벤트 경기를 장식한다.

당초 헨더슨은 UFC 웰터급 랭킹 12위인 티아고 알베스(브라질)와 싸울 예정이었다. 그러나 알베스가 훈련 도중 부상을 당해 상대가 김동현과 격돌할 예정이었던 마스비달로 바뀌었다.

한국 최고의 UFC 파이터인 김동현(20승3패1무)은 마스비달 대신 도미닉 워터스(미국·9승3패)와 웰터급 경기를 치른다. 두 선수 모두 해병대 출신으로 강력한 모습을 옥타곤에서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랑이 아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추성훈(일본·14승5패)은 무패 행진을 기록 중인 알베르토 미나(브라질·11승)와 격돌한다. 이밖에도 최두호·남의철·방태현·양동이 등 '코리언 파이터'들이 가을밤을 뜨겁게 만든다. '한국 여성 최초 UFC 파이터' 함서희는 UFC 첫 승에 도전한다.

서울 대회에 앞서 UFC는 25일부터 파이트 위크를 진행한다. 먼저 25일 오후 6시에는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트리움에서 선수 공개 훈련을 진행했다. 함서희·최두호·추성훈·김동현·마스비달·헨더슨 등이 훈련을 시연했다.

오늘 오후 7시30분부터는 국내에 많은 팬을 보유한 마크 헌트와 전 UFC 헤비급 챔피언 안토니오 호드리고 노게이라 등이 사인회를 연다. 행사장에는 UFC 옥타곤 체험, 펀치 챌린지, 응원 영상 코너 등을 마련한다.

내일 오후 2시30분에는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 대회 출전 선수 계체량이 진행된다. 헌트, 노게이라 등 게스트 파이터와의 질의응답 시간도 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경기장 외부에 UFC 팬 빌리지가 설치된다.

이번 대회에는 모델 겸 방송인 유승옥이 옥타곤 걸로 발탁됐다. 아리아니 셀레스티, 레드 텔라 크루즈와 함께 옥타곤을 누빈다. 한국 최초로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은 슈퍼액션과 스포TV(SpoTV), OtvN에서 생중계된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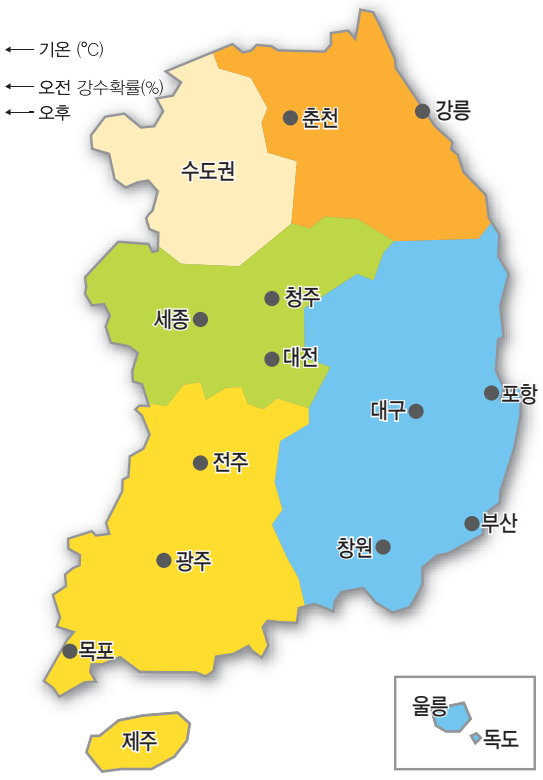
해뜸/07:022 | 해짐/17:16

11월 26일 목요일 (음력 10월 15일)

강원 영서·경기 남부엔 눈소식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 제주도는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강원도 영서는 새벽 한때, 경기남부는 오후에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	오전 강수확률(%)	오후
춘천	−3/1	20	20
강릉	1/3	30	20
세종	0/2	20	60
대전	0/3	30	70
청주	0/3	30	30
광주	2/4	80	60
전주	2/3	20	70
목포	3/3	80	90
제주	6/6	60	60
대구	2/6	20	20
창원	3/8	10	0
포항	3/8	10	10
부산	4/9	10	0
울릉	4/4	60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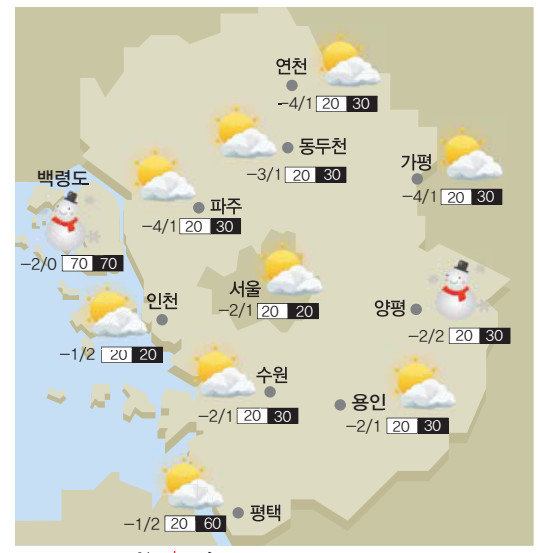
수도권 날씨

1 ~ -2℃

자외선 지수	
피부질환 가능지수	
감기 가능지수	
천식-폐질환 가능지수	

밀물과 썰물

지역	밀물	썰물
부산	08:30/20:45	01:58/14:23
인천	04:37/17:08	10:57/23:32
울산	07:39/20:12	01:12/13:28
군산	02:50/15:24	09:52/22:30
목포	01:48/14:30	07:10/19:4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LPGA '루키 빅4' 내년 2년차 징크스 없다

김세영·김효주·이민지·장하나 LPGA 데뷔시즌부터 '눈도장' 박인비와 내년 시즌 활약 예고

김세영

김효주

이민지

장하나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박인비(27·KB금융)와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의 '양강 체제'로 막을 내렸다. 내년은 '2년차'들의 돌풍이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LPGA 투어에 불어올 2년차 바람의 선봉에는 올해 신인왕 김세영(22·미래에셋)이 있다.

김세영은 이번 시즌 박인비, 리디아 고와 함께 '빅3'로 묶어도 될 만큼 눈부신 성적을 거뒀다. 상금 랭킹에서는 불과 7만 3367달러 차이로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에 이어 4위(182만달러)를 차지했다. 다승 순위에서는 리디아 고, 박인비(이상 5승)에 이어 당당히 3위에 올랐다. 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도 3위를 차지했다.

김세영의 경쟁력은 시즌 버디 2위(406개)와 이글 1위(14개)에서 드러난다. 투어 10위(평균 263.02야드)에 오른 장타를 앞세운 경기 스타일은 투어가 열리는 코스에 적응이 될수록 더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김효주(20·롯데)도 신인다운 성과를 냈다. 한차례 우승과 상금랭킹 11위(92만 3000달러), 그리고 평균타수 5위(70.14타) 등 모든 지표에서 정상급 선수의 면모를 과시했다. 역대 신인왕 중 루키 시즌에 김효주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낸 선수는 많지 않다. 다만 일정 조정에 실패한 나머지 후반 들어 주춤했다. 내년에는 대반격에 나선다는 각오로 동계훈련에 임할 계획이다.

호주 교포 이민지(19)의 활약도 돋보였다. 한차례 우승을 거둬 특급 신인 대열에 합류했다. 상금랭킹 16위(82만1000달러)에 평균타수 15위(70.88타)로 상위 랭커의 입지를 다졌다. 준우승 4차례로 가능성을 보인 장하나(23·비씨카드)도 내년에는 더 무서운 선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1년 동안 투어 생활과 대륙 대항전 솔하임컵을 통해 정신적으로 한 단계 성장한 한국계 미국인 앨리슨 리(20)도 2016년 시즌에 눈여겨봐야 할 '2년차'로 꼽힌다. LPGA 투어 전문가들은 10대 스타 브룩 헨더슨(18·캐나다)을 주목하고 있다. 기본기가 탄탄한 백규정(20·CJ오쇼핑)도 내년 시즌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

/장병호 기자

밴 헤켄, 日 세이부로 떠난다

넥센에 이적료 30만 달러 외국인 선수 첫 사례 꼽혀

넥센 히어로즈의 투수 앤디 밴 헤켄(36·사진)이 넥센에 이적료 30만 달러(약 3억4000만원)를 안기고 일본 프로야구 세이부 라이온스로 이적한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활약한 외국인 선수가 이적료를 남긴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산케이스포츠는 25일 세이부가 밴 헤켄을 영입했다고 보도했다. 세이부와 넥센, 양 구단이 밴 헤켄의 보유권 양도에 합의해 조만간 공식적으로 계약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특히 보유권 양도라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넥센 관계자는 밴 헤켄을 포기하는 대가로 세이부로부터 이적료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넥센 관계자는 "밴 헤켄과 올 시즌이 끝난 뒤 120만 달러(약 13억7000만원) 규모로 내년 시즌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120만 달러는 밴 헤켄의 올 시즌 연봉인 80만 달러보다 40만 달러 인상된 금액이다.

넥센 측은 "계약 당시 밴 헤켄이 만족스럽게 계약서에 사인했지만 포스트시즌 일정과 프리미어12 때문에 공식 발표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11월부터 세이부 측에서 집요하게 밴 헤켄 영입 의지를 보였다. 이에 흔들린 밴 헤켄도 구단 측에 정중하게 일본 진출 의사를 밝혀서 선수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설득에 실패한 넥센은 밴 헤켄이 그동안 팀에 기여한 공헌도를 고려해 일본 진출을 허락했다. 하지만 팀의 에이스를 순순히 보내줄 수는 없었다.

넥센 관계자는 "한국에서 활약한 선수를 일본이 곶감 빼먹듯 쉽게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밴 헤켄에 대한 내년 시즌 권리를 우리가 보유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이부 측에 우리가 밴 헤켄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라고 했다. 그것이 바로 이적료 30만 달러"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이적료까지 포함하면 세이부 측에서 영입을 포기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다"며 "그런데 세이부 측에서 흔쾌히 이적료를 내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테니스 황제' 페더러, 2017년까지 현역?

메르세데스컵과 2년간 출전 약속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3위·스위스)가 2017년까지 현역 생활을 할 전망이다.

AFP통신은 25일 "페더러가 메르세데스컵 조직위원회와 앞으로 2년 동안 대회에 출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메르세데스컵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해마다 6월 열리는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다. 잔디 코트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대회다.

1981년생으로 올해 34세인 페더러는 올림픽이 열리는 2016년을 끝으로 은퇴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복식 금메달, 2012년 런던 올림픽 단식 은메달을 따냈다. 하지만 아직 단식 금메달은 목에 걸지 못했다. 이 때문에 페더러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단식 금메달과 함께 현역 생활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페더러가 메르세데스컵에 2년 동안 출전하려면 2017년에도 현역 선수여야 한다. 은퇴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페더러는 메르세데스컵 조직위를 통해 "올해 처음 잔디 코트 대회로 열린 메르세데스컵은 환상적이었다"며 "늘 이 대회에 출전하고 싶었지만 시기가 맞지 않았다"고 2년 계약을 맺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회는 2014년까지 클레이코트 대회로 열리다가 올해부터 잔디 코트 대회로 바뀌었다.

/장병호 기자

‘수입車 큰손’ 30대… 구매자 10명 중 4명 꼴

수입차협회, 창립20주년 간담회

“올 판매량 23만5000대 넘고 내년엔 8.5% 더 늘어날 듯”

국내 수입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20만대를 넘어섰다.

2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 판매량은 19만6543대다. 이는 지난해 연간 판매량(19만6359대)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상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20만대 시대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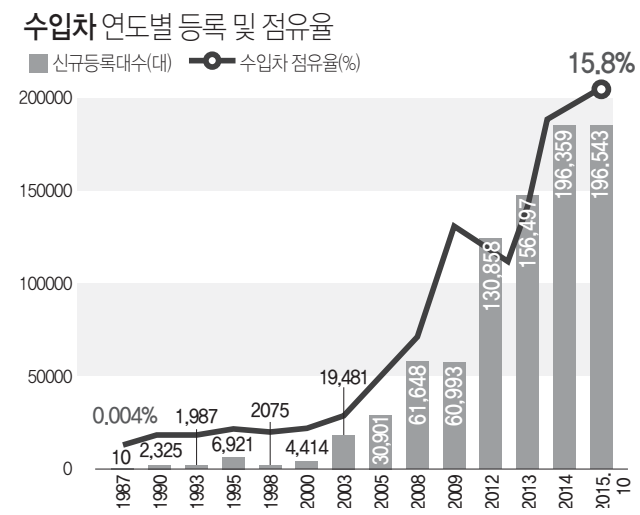
이처럼 수입차 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다양한 차종의 출시와 가격은 초기 시장보다 저렴해진 반면 사후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국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준 덕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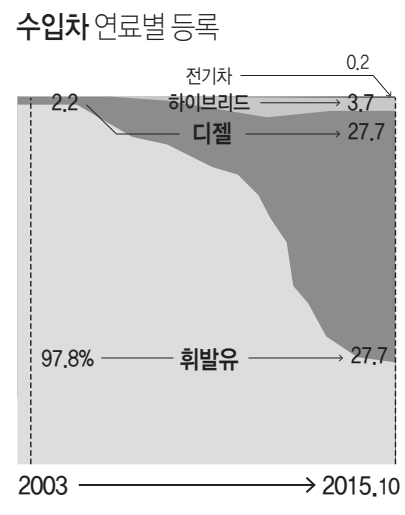
수입차협회는 이날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열린 창립 2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판매 전망을 23만5000대로 내다봤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8.5% 가량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차 시장은 매년 성장을 지속해왔다. 2000년에 4414대에 머물렀던 수입차는 2002년 처음으로 1만대를 넘어섰다. 지난 2011년에는 10만대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19만6359대, 2013년에는 15만6497대의 수입차가 국내에서 판매됐다. 올해 10월까지 수입차의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15.8%에 달한다. 1987년 0.004%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성장한 셈이다.

수입차협회 윤대성 전무는 “향후 수입차 시장 전망은 변화의 움직임이라는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다”며 “내년 수입차 판매 대수는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03년에는 2000cc 미만 수입차가 전체 판매량의 18.7%에 불과했으나 올해 10월에는 55.1%로 절반을 넘어섰다. 2003년 휘발유 모델 판매가 97.8%였으나 올해 10월에는 27.7%까지 떨어졌다. 수입차의 디젤 모델 판매 비중이 급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태가 터진 이후 디젤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판매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11월 2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정재희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에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KAIDA 부회장(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은 “전세계적으로 모든 자동차회사 최고경영진이 이번 사태가 불미스럽고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점에 동의했다”며 “표준화된 자동차 규제의 필요성을 위해 (배기가스 배출규제를) 현재 실험실 기준에서 실제 도로주행 조건에 맞도록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젤차의 성능에 대해 그는 “디젤차량은 기술 자체는 좋다”고 인정하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도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수입차 구매 연령도 변화를 보였다. 2003년 수입차를 사는 연령층은 40대가 전체의 31%로 가장 많았으나 올해 10월에는 30대가 37.7%로 압도적이었다.

독일 수입차는 2003년 전체 수입차 판매의 54.3% 수준이었으나 올해 10월에는 68.7%에 달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폭스바겐 등 독일 브랜드가 큰 인기를 끈 덕분이다. 2003년 수입차 판매의 17%에 불과했던 레저용차량(RV)이 올해 10월 26%까지 올라선 것도 주목할 만하다.

2003년 수입차 등록은 서울이 전체의 46%를 차지하며 최다였으나 올해 10월에는 경기도가 27.3%로 1위, 서울이 25.9%로 2위였다.

정재희 수입차협회 회장은 “1995년 설립된 수입차협회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한 축으로 시장의 발전과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수입자동차의 성장과 더불어 회원사의 질적 내실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입차협회는 벤츠 등 14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으며 25개 브랜드, 505개 모델이 국내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폭스바겐 코리아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인터와이어드 스튜디오에서 ‘신형 골프 R’을 공개했다. 배우 공유가 새롭게 선보인 골프 R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폭스바겐 코리아

◀지난달 14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뉴 7시리즈가 공개되고 있다. /BMW코리아

수입차 질주하니 카드도 날았다

사용실적 1년새 46% 늘어난 282억 지난달 신규등록대수는 1만7423대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연비 조작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입차의 국내 판매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고스란히 카드 사용 실적에 나타났다.

25일 여신금융연구소의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판매업종 카드승인금액은 2조225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2723억원(13.9%) 불어난 규모다.

특히 수입차에 대한 카드승인금액은 88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5%(282억원)나 급증했다. 이 기간 국산 신차판매는 2조1174억원으로 13.0%(2442억원) 늘었다.

중고차는 187억원으로 지난해 10월보다 1억원(0.6%) 줄었다. 개별소비세 인하와 소비심리 개선으로 인해 자동차판매업종의 카드승인금액 증가율(13.9%)은 전체카드 승인금액 증가율(13.1%)을 0.8%포인트 웃돌았다. 특히 수입차의 국내 판매 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3% 늘면서 자동차판매업종의 카드승인금액 증가를 이끌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차 신규등록대수는 1만7423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1만6436대) 대비 6.0% 증가한 규모다.

올해 1~10월 수입차 신규등록 누적 대수는 19만6543대로 전년 동기(16만2280대) 대비 21.1% 급증했다.

윤대성 KAIDA 전무는 “수입 자동차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는 승용차 수입·수출·해외생산 동향, 국내 부품판매 증대, 국내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 및 선진화, 국내 투자 및 고용의 증가,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을 통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무는 “향후 수입 자동차 시장 전망은 ‘변화의 움직임’이라는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국내 자동차 시장의 변화’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2016년 수입 자동차 판매 대수는 2015년 판대 대수보다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필기자 roman@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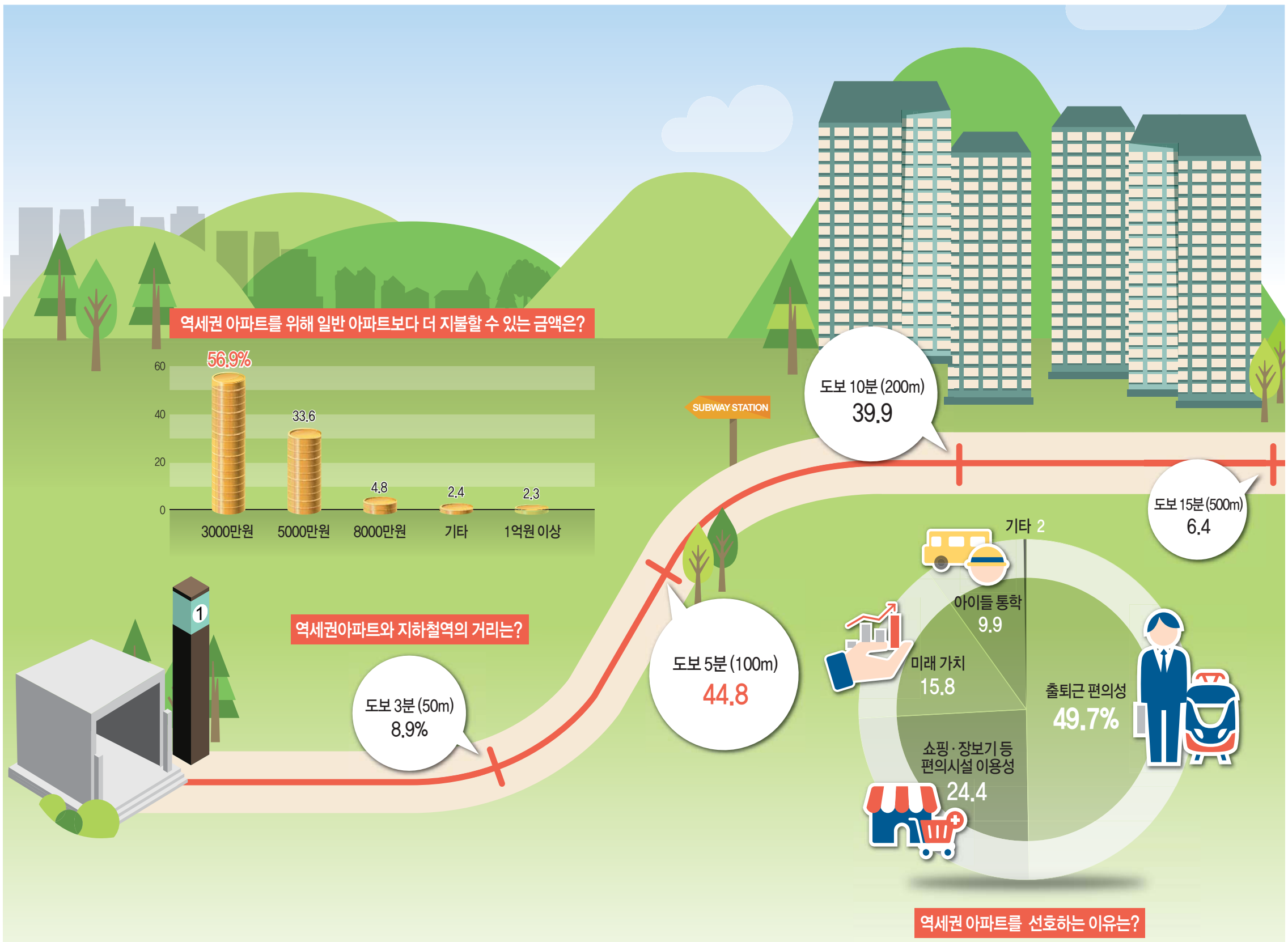
metro® Life

제3350호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라이프]
'도리화가' 영화 속 배우 수지는
16

연재만화

14



"서울보다 싸고 지하철 가까워 행복해요"

수도권역세권 연일 대박

역세권아파트 선호도 조사하니 56%가 "3000만원 더 줘도 산다"

서울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역세권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하철역 일대는 아파트·오피스텔·상가 할 것 없이 웃돈은 물론 거래도 활발하기 때문이다.

보통 역세권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풍부해 상권이 쉽게 형성되며 거주환경이 좋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 환금성이 좋고 가격도 안정적인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25일 오픈서베이를 통해 수도권 거주 27~60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역세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6.9%(569명)가 역세권 아파트라면 3000만원 더 내고서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센트럴아이파크 야경투시도.

대상지역으로는 최근 도시철도 착공으로 관심도가 높은 김포한강신도시를 지정했다.

역세권 아파트 선호 이유는 출퇴근 편의성이 49.7%(497명)로 가장 높았으며 ▲쇼핑 등의 편의시설 이용성 24.4%(244명) ▲미래가치 15.8%(158명) ▲아이 통학 9.9%(99명) 순이다.

남성은 출퇴근을 60.9%로 답해 다른 이유보다 월등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수요자(47.7%)보다 서울에 거주하는 수요자(52.2%)가 출퇴근을 더 큰 이유로 꼽았다. 서울에서 이주하는 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역세권 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역세권 아파트 정의에 대해선 '역과 단지와의 거리가 100m(도보 5분) 떨어진 아파트'라는 의견이 44.8%(448명)를 차지했다. 이어 ▲도보 10분 39.9%(399명) ▲도보 3분 8.9%(89명) ▲도보 15분 6.4%(64명) 순이었다.

하반기 수도권 일대 역세권 분양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경의선 풍산역 역세권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도시개발사업지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산3구역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32층 12개동 전용면적 59~98㎡ 1802가구로 조성된다. 경의중앙선 풍산역이 걸어서 10분(500m) 거리에 있어 서울역까지 37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metroseoul.co.kr